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312

2009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고등학교 미술 교과의 감상영역에서 시각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

- 미술영화 감상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소 영

고등학교 미술교과의 감상영역에서 시각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

- 미술영화 감상을 중심으로 -

A plan to Activate Visual Culture Education in Art Appreciation for High Schools

- Focused on Art Movie Appreciation-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소 영

Collection @ chosun

고등학교 미술교과의 감상영역에서 시각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

- 미술영화 감상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송 식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미술교육)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소 영

dCollection @ chosun

이 소 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송 식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표목차 vii

ABSTRACT viii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록 1

제2절 연구의 방법 2

제 2 장 시각문화 교육

제1절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각문화미술교육 고찰 4

1. 제7차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시각문화 미술교육 6

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각문화 미술교육 6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각문화 미술교육 11

2.교육과정 고찰의 결과 21

제2절 시각문화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22

1. 시각문화의 개념 23

2. 시각문화교육의 필요성 25

3. 시각문화에 의한 미술교육 방법 29

제 3 장 미술영화 분석과 교과서 도판 분류

제1절 미술 감상교육 실태 및 영화가 갖는 교육적 의의 33

1. 미술 감상교육 실태 33

dCollection @ chosun

2. 영화가 작는 교육적 의의.....34
제2절 미술영화 분석.....36
1. 미술영화 목록 조사.....36
2. 미술영화 양식별 분류.....38
제3절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영역 도판 분류.....40
제4절 미술영화를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지도방안.....49
1. 수업 지도안 주제 및 내용구성.....50
2. 수업 지도안 전체 회기 및 적용방법.....51
3. 구체적 수업지도안.....52

제 4 장 결론.....56

참고문헌.....58

부록.....60

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1>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비교.....6
<표 2>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영역 체계 비교.....11
<표 3>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비교.....14
<표 4> <미술과 삶> 과목의 내용 체계.....17
<표 5> <미술 감상> 과목의 내용 체계.....19
<표 6> <미술 창작> 과목의 내용 체계.....20
<표 7> 시각문화의 개념 정의.....24
<표 8> 시각문화에 대한 흥미 분석도.....33
<표 9> 미술 감상의 저해요인 분석.....33
<표 10> 미술영화 목록.....37
<표11>.미술영화에 등장하는 화가의 양식별 분류 및 활동시기 분포도.....39
<표 12> 미술교과서 국가별 도판 수 분석.....43
<표 13> 국내 미술작품 분류.....44
<표 14> 동양의 미술작품 분류.....46
<표 15> 서양의 미술작품 분류.....47
<표 16>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53
<표 17> 미술영화를 활용한 미술작품 감상 수업지도안.....53

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plan to Activate Visual Culture Education in Art Appreciation for High Schools

- focused on Art Movie -

So-Young Lee
Advisor : Prof. Song-Sig Jo Ph.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current society, communication through visual images is important and to truly enjoy abundance of this visual media, proper understanding of visual culture through media education is desperately needed. The trend of video rooms beginning with appearance of colored TV sets in 1980s encouraged us to have interest in movies. As a result, viewers' eyes to movies have considerably improved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enjoy movies. In this context, when art appreciation education is connected with movies, it is easy to understand artistic works reflecting generations, cultures and artists and to enhance visual literacy.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learning plan for which art movies are used for appreciation class. This plan was design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artistic works and visual literacy for critical appreciation learning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resent curriculum with the revised art

dCollection @ chosun

curriculum of 2007, it was found that social needs according to changes in visual environment were reflected and visual literacy that visual cultural phenomena are understood and used were emphasized. And the direction of art education that students can have experiences and communicate in life was presented.

Second, this study understood a new cultural paradigm developed based on various visual images appearing in current society as a new concept of visual cultures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visual media education in visual cultures. This study examined the phase of and features of visual culture in post-modern period and features and concepts of visual cultural phenomena. Through such process, current society can be called 'the third wave', information-based society, and post-modernism society, and defined as a society wher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diversity are recognized.

Third, this study suggested use of art movies for art appreciation education and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r secondary art education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 1.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rt Appreciation Education Using Art Movies] encourages students to understand artistic works and to have visual literacy as they know life of artists and the process of making them. However, as this study just presents a teaching and learning model, further studies on learning effect of practical application are needed.

Now, school ar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respect to learners' life as members of communities and in social and cultural context beyond learning to acquire just expressive techniques or functions and help students to communicate each other. Though the 7th Curriculum was designed learner-oriented, art education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examination for college entrance is

Collection @ chosun

disregarded by students due to curtailment of hours and introduction of optional subject system and finally it will be doomed to be cut or disappear. However, in our reality where people want to create and enjoy art and cultures and pursue continuing learning, art education based on visual cultures is necessary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when mass-media, society and learners change their recognition on school education and have intention to innovate art education, its effect will be maximized.

Collection @ chosun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모던 사회, 다원주의적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 정보 산업 사회 등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의미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정보가 산업이 되고 문화가 상품이 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동적인 시각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정보들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이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능력의 향상은 나와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며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 또는 문화해독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시각적 문해력이란 시각 이미지를 자신의 주체성있는 시각으로 변별하고 활용하며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

이러한 시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각 문화적 환경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술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예술교육 중에서도 미술교육은 인간의 감성적 체험 중 시각체험과 표현의 기회를 통해 미적 안목과 더 나아가 사회 문화적 유대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원화, 정보화된 세계를 지향하며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미술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미술을 통하여 다양한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확산적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방향으로 미술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미술교육 현장에선 과거 어느 때 보다 표현보다는 전반적인 미술의 이해나 미술 감상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미술 감상은 조형품에 대해 그 가치를 느끼

1) 황영주, 「영상정보화 시대와 비주얼 리터러시 교육」,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2003, p322 .

dCollection @ chosun

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종합적 활동이다. 작품이 내포하는 주제나 개념, 상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시대, 문화, 작가의 반영물로 읽혀져야 한다는 작품의 문맥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술 감상교육은 시대와 동떨어진 미술 자체에 한정된 감상이 위주였다.

다양한 시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미술 감상지도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한다. 지난 80년대 칼라 TV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비디오방의 유행은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한 관심의 붐을 불러왔다. 그 결과 이제 영화에 대한 관객의 안목과 이해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2]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미술 감상교육을 영화의 내용과 연관하여 교육하면 한 시대, 문화, 작가의 반영물로서 미술작품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물론,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도 길러지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술영화를 미술 감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에 두고자 한다.

첫째, 미술 감상교육에서 미술영화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력 향상과 시각적 문해력을 기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둘째, 영화감상을 통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시각적 문해력을 키우고 다양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는 한편, 경험의 질을 높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 중 '감상'수업의 효율성을 모색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미술영화감상을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술영화에 대한 연구와 이방면에 관한 참고문헌 연구 및 활용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상과 미술영화에 관한 참고 문헌과 선행논문을 인용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술영화를 활용한 미

2) 노영덕, 『영화로 읽는 미학』,랜덤하우스중앙, 2006년.

dCollection @ chosun

술 감상교육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 이다. 미술영화 감상을 중심으로 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시각문화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발전에 왔는지 알아보고, 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 개정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7차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시각문화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제 7차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시각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을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서 정의 내리고 선행 논문 연구를 통하여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방법을 알아본다.

셋째,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8종 교과서의 도판분석을 통하여 미술작품을 살펴보고 시대별로 분류한다. 시대별로 분류한 교과서의 도판이 고르게 분포되어있는지 통계를 내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미술 감상 수업을 할 때 영화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선행논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미술영화를 조사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미술가의 작품과 시대상에 대해 조사한다. 미술영화를 시대상으로 분류하고 분포도를 조사한다.

다섯째, 시대상으로 분류한 교과서 도판과 미술영화 분포도를 비교하고 고찰한다.

dCollection @ chosun

제 2장 시각문화 교육

제1절 제7차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고찰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에서 시각문화교육의 도입으로 인한 내용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7차 미술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의 학제별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의 중학교(7~9학년)수준에서는 생활 속에서 미술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목적과 의도에 맞게 표현을 계획하고 적용하며 미술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미술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

미적체험 영역에서는 제7차 미술교육과정에서의 자연미와 조형미, 미술과 생활을 자연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으로 구분하여 자연과 시각문화의 조화에 관해 이해하고 시각문화 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표현영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표현의도에 알맞은 표현과정을 계획하여 학습자의 표현활동이 자신의 지향성을 위한 의미적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표현하는 절차적 과정이 하나의 미적경험이 되도록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감상영역에서는 미술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해석과 미술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속에서 미술이 활용되는 분야에 관하여 토론하기, 인간생활을 고려하여 설계된 생활용품, 생활공간, 영상물 등을 찾아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실생활과 관련된 미술학습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미술이 생활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문화교육이 반영된 학습요소이다.

3)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7. p.8.

Collection @ chosun

또한 표현영역의 주제표현 부분에서 다른 교과 또는 행와 관련하여 나타내기라는 학습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학문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통합적인 수업을 위한 움직임으로 시각 문화 교육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사진, 영상 등의 새로운 매체와 표현방법을 탐새하여 나타내기,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를 통해 미술창작 경향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작품 뿐 아니라 미술가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술가와 작품의 역할을 이해하기를 통해 미술가의 삶과 문화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문화적 의미 생산자로 볼 수 있도록 하며 미술사에 관련된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통해서 미술적 지식과 미술적 이해가 학습자에게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생활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며 표현활동의 탐색, 확장을 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며, 미술작품을 판단하고 미술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

고등학교 1학년 미술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미적체험에서는 자연환경과 조형의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각 문화 환경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자연환경에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기와 시각문화 환경이 사고방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고 시각문화 환경의 벼화와 다양한 미술관련 직업에 토론하기를 통해 시각문화 교육내용의 반영을 알 수 있고 표현영역에서는 주제표현과 표현과정으로 크게 나누어 새로운 주제, 표현방법,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표현과정을 살펴보고 다음계획에 반영하기를 내용으로 한다. 감상영역에서는 미술작품의 다양한 가치를 판단하고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토론하고 비평의 형식을 알고 비평문을 쓰는 학습내용과 미술문화에 가치를 알고 전통미술의 계승과 발전방안을 찾아보고 전시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지도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점'과 '영역별 지도 시 유의사항'을 보다 확대 편성하여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계획과 교수

4) 교육인적 자원부,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 p.5.

Collection @ chosun

학습 방법 내용영역별 지도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또한 '평가 상의 유의점'과 '영역별 평가 관점'을 '평가계획','평가방법','내용영역별 평가','평가결과 활용'으로 세분화하여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제7차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시각문화 미술교육

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각문화 미술교육

중학교 영역별 시각문화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각 영역을 비교해 보면<표 1>과 같다.

<표 1>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비교

영역	제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미적 체험	(1)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과 조화 이해하기 ① 자연과 조형물의 구조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한다. ② 자연과 조형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토론한다.	(1) 자연환경 자연환경과 시각문화의 환경에 관하여 이해하기 ① 자연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생활용품, 생활공간, 영상물 등을 찾아보기 ② 자연과 시각문화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토론하기
	(2) 미술과 생활의 관계 이해 생활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①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형물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생활에서 미술에 역할에 관하여 토론한다.	(2) 시각문화 환경 시각문화 환경이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①인간생활을 고려하여 설계된 생활용품, 생활공간, 영상물 등을 찾아보기 ② 생활 속에서 미술이 활용되는 분야에 관하여 토론하기

Collection @ chosun

표현	(가) 주제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 등을 생각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조형적 질서를 나타낸다. ② 시각전달과 환경에 필요한 것, 생활용품을 나타낸다. ③ 한글, 평이한 한자로 나타낸다.	(가)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나타내기 ②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③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나타내기
	(나)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 주제와 목적에 알맞은 표현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낸다. ② 여러 가지 서체로 쓰거나 새긴다.	(나) 표현 방법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①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 등을 탐색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나타내기 ② 사진, 영상 등의 새로운 매체와 표현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내기
	(다) 조형요소와 원리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형, 색, 질감, 동세, 명암, 공간, 비례, 구조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② 자형, 문자의 크기, 배자, 자법, 도법 등을 익혀서 쓰거나 새긴다.	(다) 조형요소와 원리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다. ① 주제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조형요소와 원리로 나타내기 ② 목적에 적합한 조형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나타내기
	(라) 표현재료와 용구 주제나 표현방법에 알맞은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주제나 표현방법에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② 여러 가지 용구의 사용방법을 이해하고, 선택하여 활용한다.	(라) 표현과정 표현의도에 알맞은 표현과정을 계획한다. ① 표현의도에 알맞은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 등을 계획하여 나타내기 ② 표현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감상	(가)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표현특징을 찾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감상방법을 이해한다. ② 주제, 표현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가)미술작품 미술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한다. ① 미술작품의 시대별, 지역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하기 ② 미술가와 작품의 역할 이해하기 ③ 미술사에 관련된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기
	(나) 미술품 문화유산 이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파악한다. ② 다른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파악한다.	(나) 미술문화 미술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① 전통 미술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보기 ② 지역미술발전을 위한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등의 역할을 이해하기

dCollection @ chosun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에서는 학년 군별 도표를 제시하여 지도중점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미술 활용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습자가 시각적 대상에 대하여 감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과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중학교 수준에서는 미적체험의 학습은 생활 속에서 시각 환경의 기능이나 역할을 찾아보면서 미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5)]

기본적으로 미적체험 영역에서의 학습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각 대상이나 환경에 대하여 다양한 감각과 활동으로 지각하고 이해하며 판단하도록 한다.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영역의 조형미, 미술과 생활이 시각문화 환경으로 통합되면서 중학교 수준에서 미적 체험은 <표 1>를 통해 살펴보면 자연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에 관하여 이해하고 시각문화 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활동 내용으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생활 용품, 생활공간, 영상물을 찾아보고 자연과 시각문화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토론하기와 인간생활을 고려하여 설계된 생활용품, 생활공간, 영상물을 찾아보고 생활 속에서 미술이 활용되는 분야에 관하여 토론하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미술교육과정의 미적체험 부분은 조형요소 및 원리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형식주의적 모더니즘의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문화교육론은 시각적 대상이 제공하는 경험을 미적체험으로 한정 짓지 않는다. 미적 체험영역은 시각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미적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미적 체험 활동에서는 자연과 인공물의 조형요소와 원리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미를 관찰하고 있으며 인공물의 범위 또한 건축에 크게 치우쳐져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은 현재의 다양한 시각문화의 영역을 담기에는 한정적이며 학생들이 쉽게 접하는 미술과 교과서의 미술 사이에 괴리를 느끼게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생활을 시각 문화 환경이라는 용

5) 양윤정 외 저,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5. pp.29-30참조.

dCollection @ chosun

어로 수정하여 대중적인 사각문화 환경 등 폭넓은 범위의 수준의 시각문화 환겨을 포함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시각문화는 대중문화로 생활화 되었고 시각문화의 자원화는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 밖 생활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미와 조형미'를 시각 문화 환경으로 수정하게 된 것은 영상을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시각 환경을 수용하고 조형 활동의 시대 문화적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적 체험 영역에서 시각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현대의 시각문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각문화 전통과 미래의 시각문화를 고려하여 오늘날 사회에 맞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시각 환경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지 또는 유해한 지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생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조직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표현방법과 재료와 용구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표현과정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표현의 요소와 적용, 아이디어의 탐색과 발전, 표현 계획의 수립과 반성, 표현의 확장 등 좀 더 넓은 경험으로 표현 학습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표현에 사용되는 기초 조형언어를 이해를 바탕으로 중학교 수준에서 표현학습은 미술경험을 생활과 연결해서 제공하여 조형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학교 미술교육과정 표현영역의 내용 요소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현요소(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네 가지 학습요소를 의미한다. 새롭게 추가된 표현과정이나 표현의 확장에 비교해서 표현요소는 표현활동의 구조를 나타낸다. 표현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감수성과 수행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표현과정은 풍부한 발상을 통해 표현의도를 구체화하고, 적절한 방법

dCollection @ chosun

과 과정을 계획하고 계획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선택과 판단 과정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고 과정이다.

따라서 표현의 전 과정을 수행하면서 학습자의 사고능력을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표현과정은 표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자의 의미 있는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표현의 확장에서는 자기표현 중심의 미술학습의 경험을 좀 더 폭넓은 경험으로 확대하기 위한 영역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세분화되고 지엽적인 기능이 아니라 상활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이 요구되기 때문에 타 영역과의 활동 중심의 통합, 미술경험에서 타 영역의 내용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통합, 미술수업 외에 학습자의 생활세계와의 통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표 1>의 표현영역을 살펴보면 중학교 수준의 표현 영역에서는 주제 표현에 있어서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나타내기와 표현방법에서 사진, 영상 등의 새로운 매체와 표현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내는 것을 통해 시각문화교육 내용의 반영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수준에서 감상학습은 초등학교에서 익힌 미술지식과 개념 - 미술작품을 비롯한 미술의 지식과 개념, 생활 속에서 만나는 전통문화,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미술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학습경험에 중점을 둔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체계에서 감상영역의 경우 수준별 구분이 질적인 변화에 기초하기 보다는 양적인 폭의 증가로 사고능력의 학교 급별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학습자의 인지 능력 발달 단계가 무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미국 교육과정의 '미술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미술사적 이해'에 관련해서 본다면, 교육내용이 학습자가 저학년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초하여 미수로가 문화의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중학년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수집, 탐구, 분석, 반성적 사고를 거쳐 고학년에서 미술과 문화를 통하여 자아를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환원하는 체계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6]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에서는

6) 상게서, p83.

Collection @ chosun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서 중학교 수준 감상영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술가와 작품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술사에 관련된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기 등을 통해 미술작품, 미술가, 미술사에 대한 지식, 개념, 용어 등을 이해하고, 풍부한 조형 표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개정 미술교유과정에서 미술과 문화가 감상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중학교 수준 감상영역에서 미술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미술의 현대적 의미를 찾고 지역의 미술문화가 표현의 형식이나 미술에 대한 지식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의미 있는 생활영역으로 다가가기 위해 독립된 영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졸업한 후에 미술문화를 학습하게 될 지역사회의 미술 문화 분야를 학교 미술수업에서 이해시키고 경험하게 하는 방안으로 지역미술발전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경험으로 선정하고 있다.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각문화 미술교육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흥미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재고하기 위해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7차 교육 과정 개정'도는 '8차 교육 과정'등 그 명칭이나 개정 범위에 따른 혼란과 논의가 많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새로운 다음 교육과정으로의 전면 개정이 아니라 제 7차 교육 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수준별 교육과정·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한 내용이 두드러지는데,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크게 개선된 영역 체계를 7차 교육과정과 비교·구성하여 <표 2>과 같이 제시한다.

<표 2><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영역 체계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	대영역	교과	대영역

dCollection @ chosun

고등학교 (10학년)	미술	미적체험	미술	미적체험
		표현		표현
		감상		감상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미술과 생활	미술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의 기능
				미술의 변천
				미술의 확장
		미술 감상	미술 감상	관찰과 반응
				분석과 해석
				판단과 활용
		미술 창작	미술 창작	주제와 발상
				매체와 표현
				분석과 적용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과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기존의<미술과 생활>과목[7] 1개에서<미술과 삶>, <미술 감상>,<미술 창작>의 3가지 체계로 세분화·다양화 하여 선택권을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미술과 생활>과목이 <미술과 삶>이라는 과목으로 확장되고,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감상' 영역이 <미술 감상>과목으로,'창작'영역이 <미술 창작>과목으로 확장·도입된 것이다.

이번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문해력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 미술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강화
- 미술 교육의 생활 속에서 활용성 재고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환경 조성
- 학습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설 요구[8]

개정 교유과정인 확정·발표되기까지 여러 번에 걸친 연구와 공청회, 협의회를 통해 시각문화교육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이 계속해서 논의 되었으며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번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시각문화에 기초한 미술교육의개념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미술과 개정안 연구과정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교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과목'이라 지칭한다.

8)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미술), 교육과정 자료 제406호, 2007,p.55.

dCollection @ chosun

-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인 육성
-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 제공
- 교육과정의 명료화
- 미술 교과 내외의 통합적 활동의 수용[9]

위 내용 중 시각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상 정보 및 영상 문화 중심의 시각 환경을 학습 경험으로 구성·조직하고 미적 체험의 내용 요소에 '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의 배경과 기본 방향에는 시각적 문해력 향상, 시각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 제공과 영상 문화 중심의 시각 환경 등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각문화 교육과 관련한 용어와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 방향 제시되어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선택과목 교육과정 구성의 논리[10] 에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예술적, 문화적 소양 교육을 위한 미술 과목 개설'이라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는 미래 사회에서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미적 안목을 강조하는 교육, 시각 문화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감상과 비평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 자신의 생활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공통 기본 교유과정인 <미술>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미술>교과

미술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생활 속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의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정보, 환경, 생명 등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다양한 동기 유발을 통해 표현 의지를 본돋워 주고 표현과정, 표현의 확장에

9) 상게서,2007,pp55-56.

10)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지침과 기준 -고등학교 미술 교과 선택 과목」,2006.

Collection @ chosun

관한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 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내게 한다.

셋째,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이나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문화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한다.[11)]

- 생활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한다.
- 표현 활동의 탐색, 확장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한다.
- 미술 작품을 판단하고 미술 문화에 참여한다.[12)]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미술과 전체의 목표는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을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로 고등학교 하위 목표 중에는'생활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표현 활동의 탐색, 확장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한다.'라는 제시어를 통해 미술의 의사소통의 기능과 문화적 가치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목표 설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내용체계를 살펴 보기위해 <표 3>와 같이 구성하여 7차 교육과정에서 개선된 부분을 비교해 보았다.

<표 3 > <미술>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비교

영역	제7차 교육과정 <미술>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미술>
	고등학교	
	10학년	

1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미술과 교육과정 <별책 13>」, pp.2-3.

12) 상게서,pp.3-4

dCollection @ chosun

미적체험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이해	●자연환경 -자연 환경과 조형 의식의 관계 이해
	●미술과 문화의 관계 이해 -다양한 문화의 미적 가치를 비교하여 미술 문화의 특성 이해	●시각 문화 환경 -시각 문화 환경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
표현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 등을 생각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주제 표현 -새로운 주제, 표현 방법, 매체를 활용한 표현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린 창의적 표현	●표현 과정 -표현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계획에 반영
	●조형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 이해를 이해한 창의적 활용	
	●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활용	
감상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치를 판단하고 감상
	•미술 문화 유산 이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배경의 이해	•미술 문화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

<표 3>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미적 체험 영역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고문화'라고 하였는데 반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시각문화 환경'이라는 용어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며'시각 문화 환경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기'는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영역의 수업에서는 생활 속에서 시각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활동이 개념 학습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체적인 활동으로 유도해야 한다.

표현 영역에서 '주제 표현'의 세부내용에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주제로 나타내기'와 '여러 가지 목적, 조건,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나타내기','재료와 용구를 확장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매체로 나타내기','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나타내기'로 제시되어 있다. 즉 주어진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와 표현을 요구하며 주체가 요구하는 목적과 의도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주제를 미술 장르에 제한하지 않고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Collection @ chosun

것이다.

또한 표현 영역에서는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표현 방법ㅂ과 조형 요소의 원리와 표현 재료와 용구로 제시된 내용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현 과정'이라는 영역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현 활동 과정을 통한 문제 인식, 판단과 실행 등의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2)<미술과 삶> 과목

<미술과 삶>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교과 중 새롭게 편성된 과목이다.
과목 개설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차의 '미술과 생활' 과목의 교육적 의도를 계승 발전
- 미술을 삶 속에서 활용하고 향유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성숙성한 문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과목
- '생활'을 포함하는 인류의 삶 속에서 미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문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주제로 교육 내용 구성
- '미술과 삶' 과목은 국민공통기본 교유과정의 '미적 체험' 영역을 생활, 문화와 관련한 주제 중심 과목으로 발전시켜 구성
-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미술 과목[13]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과 삶> 과목은 7차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과목인 <미술과 생활>이 확장·개설된 것이다. 이전의 '생활'이라는 단어를 포괄하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삶'을 위한, '삶'속의 미술이라는 개념을 끌어내고 보다 넓은 '문화'의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즉 미술을 삶 속에서 향유하고 활용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방향과 매우 근접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1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지침과 기준 -고등학교 미술 교과 선택 과정-전게서, 2006.

dCollection @ chosun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미술과 삶>과목은 주제 중심의 대영역으로 내용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 >[14]와 같다.

<표 4> <미술과 삶> 과목의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미술의 기능	미술과 언어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기능 이해하기 -개인적 의미와 현대의 사회적 현상 등을 시각 이미지나 미술 작품으로 제작하기
	미술과 디자인	-생활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미술의 기능 이해하기 -생활 용품, 생활 공간 등을 계획하고 제작하기
미술의 변천	미술의 의미	-시대별, 지역별 미와 미술의 시각변화 이해하기 -미와 미술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 주는 작품 제작하기
	미술과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미술의 변화 이해하기 -새로운 재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 제작하기
미술의 확장	미술과 직업	-다양한 직업에서 미술의 활용 조사하기 -진로와 관련된 직업군을 조사하고 진로 계획 세우기
	미술과 통합	-미술과 다른 분야와의 통합의 의미 이해하기 -다양한 통합 방안을 미술에 적용하기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술과 삶> 과목의 중영역에서는 '미술과 언어','미술과 테크놀로지'라는 두 영역에서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미술과 언어'영역에서는 미술을 시각적 언어로 정의하고 그것의 사회적 소통의 기능을 이해하며, 개인적·사회적 현상을 시각 이미지나 작품으로 제작활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미술과 테크놀로지' 영역에서는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른 미술의 변화를 이해하여 새로운 재료와 매체를 활용한 작품 제작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현대의 새로운 시각문화 현상을 반영한 내용 체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미술과 교육과정 <별책 13>」,p.16.

Collection @ chosun

(3) <미술 감상>과목

<미술 감상>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교과 중 새롭게 편성된 과목이다.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감상' 영역을 확장시켜 미수에서 말하고, 읽고 , 해석하고 판단하는 감상과 비평의 체계적인 절차를 학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목 개성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대 생활에서 미술 작품을 비롯한 시각 현상들의 의미를 읽어내고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한 문화적 능력이며 이에 필요한 감상 교육이 중요해짐.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의 감상 교육이 미적 체험, 표현 등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감상에서의 '보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감상에서의 '읽고 말하기','해석하고 판단하기' 등 폭넓은 감상 교육이 필요함.
-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학습자들은 비평적 사고와 활동이 활발해지고 미술에 대한 가치 판단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적합한 감상 교육으로서 비평 교육이 체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과목[15]

<미술 감상> 과목은 7차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미술 이론' 과목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감상'영역을 확장·개편한 것이다. 미술 작품을 비롯한 시각 현상의 의미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감상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보는 '미술이 아닌 '읽고 말하는' 미술, '해석하고 판단하는'미술로의 확장된 감상 교육 개념이 도입되어 시각문화의 핵심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미술 감상>은 방법 및 절차 중심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체계는 다음의 <표 5>[16]과 같다.

---

15)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개정시안'현장 적합성 검토'지침과 기준 -고등학교 미술 교과 선택 과목- 전게서, 2006.

1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미술과 교육과정 <별책 13>」, p.22.

Collection @ chosun

<표 5> <미술 감상> 과목의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관찰과 반응	직관적 감상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적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감상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기
	현장 체험	-생활 주변, 미술관, 박물관, 작가 스튜디오 등에서 미술을 감상하기 -학교 및 지역 미술 행사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분석과 해석	조형적 특성 이해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기법 등을 분석하기 -작가 양식, 시대 양식, 민족양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감상 대상의 형식적, 양식적 특성에 기초하여 정보를 해석하기
	미술가 탐구	-미술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미술가의 개인적 경험, 성장 배경, 표현 특성의 관계 이해하기 -미술가가 지역, 사회,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해석하기
	맥락적 이해	-시대별, 지역별 미술의 특성 비교 분석하기 -감상 대상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시간, 장소, 환경에 따른 감상 대상의 의미 변화 이해하기
판단과 활용	미술 비평	-미술이나 미술가에 대한 비평의 관점에 대하여 토론하기 -비평 관점을 활용하여 비평문 작성하기
	감상의 활용	-주제가 있는 전시 기획하기 -감상 대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보여 주는 작품 감상집, 포트폴리오 등을 제작하기

<표 5>의 내용의 중영역 중 '맥락적 이해'에서 감상 대상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해석활동을 제시한 점에서 볼 때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교육적 접근 방법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4)<미술 창작>과목

Collection @ chosun

<미술 창작>은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표현'영역을 확장시킨 것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교과 중 새롭게 편성된 과목이다. 과목 개설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대 생활에서 자신의 생활을 디자인·창조하는 능력은 문화 생활에서 중요함.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의 표현 교육이 미적 체험, 감상과 균형을 이루면서 전인 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창조의 감각을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표현 교육이 필요함.
-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형화하고 싶어하며 이에 필요한 창작의 기초 소양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미술 창작 분야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17]

<미술 창작>은 7차 교육과정의 일반계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목의 '미술 실기' 교과를 확장·개편하였다.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형화하고 창조하는 표현 능력을 현대 문화생활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능력의 향상을 교과의 개설 취지로 제시하였다.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방법 및 절차 중심의 대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6>[18]과 같다.

<표 6> <미술 창작> 과목의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주제와 발상	표현 주제	-문화적 맥락에서 주제, 상징, 아이디어의 변천,유사점과 차이점 이해 -작품에 나타난 상징성을 현대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표현
	발상과 표현	-발상의 기본 원리아 방법을 이해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
매체와	평면 표현	-평면 표현의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등을 이해하고 표현

17)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지침과 기준 -고등학교 미술 교과 선택 과목-전게서, 2006.

18)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미술과 교육과정 <별책 13>」, p.29.

dCollection @ chosun

표현		-평면 표현의 특징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
	입체 표현	-입체 표현의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등을 이해하고 표현 -입체 표현의 특징을 살려 자품을 제작하고 발표
	매체의 확장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재료와 기법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표현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여 표현에 적용
분석과 적용	작품 분석	-작품의 제작 의도를 파악하고 재료와 표현 방법을 분석 -작품 분석을 통해 조형 방식의 차이와 소통의 의미를 파악
	작품의 재발견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 -작품 평가에서 얻은 개선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성하고 제작

<표 6>에 제시된 '주제와 발상' 대영역의 '표현 주제' 소영역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와 작품의 상징성을 현대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폭넓은 시야로의 주제와 발상의 접근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매체와 표현' 대영역의 '매체의 확장' 소영역의 내용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기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매체를 탐색한 표현활동을 통해 현대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표현기법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과정 고찰의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기본 방향에는 시각적 문해력 향상, 시각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 제공과 영상 문화 중심의 시각 환경 등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각문화 교육과 관련한 용어와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미적 감수성'이나 '직관', '비평능력','시각 이미지', '소통', '시각적 문해력', '미술 향수능력'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전체적인 개정 방향에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관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새로운 시대로의 요구와 변화가 반영되어 있었다. 또, '미술'과 '문화'의 개념을 통합하여 '시각문화'라는 현상으로 읽어내고 '생활'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개념을 수정하여 문화와 가치, 사회 현상과의 맥락에서 연결되어 질 수 있는 '삶'이라는 용어를 통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술 교

Collection @ chosun

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계획과 방법에는 각 영역별 관련성과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 활용과 협동 작업과 현장 견학, 극화, 토론 등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관심 사례를 활용한 실천적인 학습 과제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검토해 볼 때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개념과 방향에 근접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제 7차 개정 미술과 교유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각문화의 개념과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2절 시각문화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현재 우리는 숨 가쁘게 일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왔던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접어들었다. 이는 달리말해 산업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탈산업사회라 부르기도 하지만 정보가 권력이 되는 사회라 하여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명명되기도 한다.

정보사회가 가져다주는 어감만큼 사회는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적 대상이 사회와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주역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달한 디지털 미디어의 힘이다.

'미디어'의 의미는 기술적인 의미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위한 '운방인(Trager)'또는 '수레(Vehikel)'(Clark,1983)로써 중간자적인 역할을 뜻한다. 그 외에 미디어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대상, 기술적인 도구 그리고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Weidenmann 1995, p 66)[19]

미디어의 발달은 한 때 저급한 문화로 손가락질 당하던 대중문화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누구나 쉽게 넘나들 수 없었던 고급 지식문화의 담을 허물어 대중문화의 저변을 확대 발전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와 더불어 TV, 인터넷, 영화, 광고매체 등을 통

19) 황연주, 「영상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미술교육에서의 '비주얼 리터러시 교육」, 『美術敎育論叢 제12집』, 2001. p.138,

dCollection @ chosun

해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시각정보까지 미디어의 산유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예술분야에서는 응용미술은 물론이고 순수미술의 고매한 영역까지 멀티미디어 아트, 인터넷 아트, 비디오 아트, 영상 설치 미술 등의 이름으로 미디어는 활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사람들은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혹은 꿈속에서 상상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까지 시각정보를 보고, 느끼고, 사용하는 일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세상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차적인 목표와 더불어 습관, 철학, 생활 등에 관여하여 새로운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로 시각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각문화에 대해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시각문화의 개념

시각문화는 '시각(the visual)'과 '문화(the culture)'의 합성어로 '시각'의 광범위함과 '문화'의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음악, 미술, 연극, 문학, 영화, 사전, 전자 미디어, 무용, 율동, 스포츠, 비디오 등 모든 예술적 양식을 통칭하는데 이들 중 특히 우리의 시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양상을 '시각문화'라고 지칭한다.[20] 다시 말해 회화, 판화, 조소와 같은 기존 시각예술의 개념에 대중 문화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 만화, 게임, 사진, 영화 등과 같이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문화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술사 영역에서 시각문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알퍼스(Svetlana Alpers)이다. 그녀는 1893년에 발표한 논문< The Art of Describing: Dutch Art in the Seventeenth century>에서 17세기 독일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논의하면서 '이미지가 세상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의 시대와 문화'란 의미로 '시각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21]

20) 황연주, 「시각문화 교육의 일환으로써 디지털 영상에 관한 연구」, 『美術敎育論叢 제 13집』,2002 p.31.
21) 김정선「 '미술교육'에서 '시각문화교육'으로」 『새길을 여는 교육비평 제20권』, 교육비평. 2006, p.124.

Collection @ chosun

오늘날 서구의 학계나 문화계에서는 시각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시각문화의 개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여기서는 시각문화 교육에 대한 미술교육자들의 견해를 김정선[22]에 의해 크게 시각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 시각적 측면과 사회적 맥락적 측면을 통합한 경우, 그리고 실제와 이론을 통합한 경우의 네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다음의 <표 7>[23]과 같다.

<표 7> 시각문화의 개념 정의

학자	시각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
뒤트만 (Duttmann)	시각문화는 문화와 시각사이의 연결을 가정해야만 하는 “이미지의 문화적 헤게모니”로서 규정되며, 따라서 문화가 개념보다 이미지에 근거하거나 이미지가 특정 문화 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됨을 의미한다. 시각문화는 또한 시각이 주어진 문화 안에서 경작되어야만 하고, 시각을 위한 참조 틀의 문화적 창조 그 자체가 시각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참조 틀에 의해서 이끌리는 이미지에 관한 문화적 매개체가 되어야만 한다.
마이조프 (Mirzoff)	시각문화는 시각적 테크놀로지와 접속하여 소비자들이 정보, 의미, 기쁨을 찾는 시각적 이벤트이다(Mirzoff, 1998 김정선, 2002 재인용).
헨더슨 (Henderson)	시각문화는 보는 것과 보인 것으로 정의하여 시각적 경험에 대한 반응 방식이다(Henderson, 1999, 김정선, 2002 재인용).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
설리번 (Sullivan)	시각문화는 특유의 광범위한 구역 안에서 그 구조와 맥락을 통하여 규정되며, 이는 시각문화현상이 광범위함으로 단순명료한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고 구조와 맥락을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llivan, 2003, 1999 김정선, 2002 재인용).
타빈 (Tavin)	시각문화는 시각적 경험이 사회제도, 실체와 구조 안에서 어떻게 구축되어지는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이다(Tavin.2003. 1999 김정선, 2002 재인용).
허버트 (Herbert)	시각문화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서 미술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분명한 시각적 측면을 갖는 모든 인간의 산물로 규정한다.

22) 김정선, 「의사소통 중심의 시각문화교육을 통한 미술교육 개선 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 2004.

23) 김현영,「시각문화미술학습 환경설계 모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06, p.4의 <표1>(김정선, 상게서, pp85-8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표로 제시함)

Collection @ chosun

미첼 (Mitchell)	시각문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맥락을 강조하며, 시각을 문화적 구성물로 본다. 시각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길러지는 것이므로 그것은 미술, 테크놀로지, 미디어 그리고 전시와 관찰의 사회적 실제의 역사를 가진 결정된 방식과 관련된 역사를 가질 수 있다.
	시각적 측면과 사회적 맥락적 측면을 통합하는 경우
엠벌지 (Oatrica M Amburgy)	시각문화는 문화적 실제의 중요한 구성물로서 시각적 특성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방식이며 맥락이나 권력과 같은 드러나지 않은 의미와 차원을 포함한다. 이미지의 기능과 행위, 사고, 비전은 현대의 이론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문화적 실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와 이론을 통합하는 경우
크루스 & 포스터 (Kruss & Foster)	시각문화는 일상용품 이미지와 시각적 테크놀로지에 의해 매개된 세상에 관한 부분적 설명과 미술사, 영화이론, 미디어 분석, 그리고 문화 연구 간의 간학문적 수렴을 위한 아카데믹한 규정 모두를 의미한다.

<표3>과 같이 시각문화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입장과 연구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각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를 형성하는 경험들을 되돌아볼 때 시각문화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한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시각문화라고 해도 될 만큼 시각적 경험의 의미는 중요시 되고 있다.

2. 시각문화교육의 필요성

시각적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는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하게 되었다. 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육에서는 당연히 오늘날의 지배적인 시각적 현상인 영상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교과서에도 그림들을 제작하고 읽는 것이 학습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그림 제작과 작용 그리고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교과가 미술과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각적 미디어에 의한 정보들을 시지각을 통해 입수 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술적 요소가 우

Collection @ chosun

선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 미디어 교육은 다른 어떤 교과서보다 시각을 주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각적 미디어는 오늘날 일상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예술영역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조형언어로 작용하고 있다. 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육에서는 당연히 오늘날 지배적인 시각적 현상인 시각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오늘날의 시각적 현상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생활 문화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오늘날과 미래의 사회, 문화적 삶에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각적 미디어들이 점차 지배적인 현대의 시각문화의 시대를 맞아 시각적 미디어 교육은 미술교육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24] 또한 시각매체교육의 필요성을 미술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의 측면과 현대 미술의 변화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또 하나의 일상화된 문화이다. 이에 대해 라니(Lanir)는 학생들이 대중문화와 대중 스타들로부터 기꺼이 그들 자신들을 확인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대중문화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회의 이슈를 다루므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예술 자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를 절하하게 한다고 보았다. 박암종 또한 문화 강대국들의 문화 침투 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①영화 ②영상 ③음악 ④미술 ⑤박물관,미술관 ⑥공연(음악, 발레) ⑦뮤직컬 ⑧만화영화 ⑨전자게임 ⑩디자인 등을 들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술적 요소가 뒷받침 된 시각매체가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 침투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되므로 국제적 경제적으로 강화의 측면에서도 미술교육에 있어 시각매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배경'과 '다원성'을 중시하는 교육의 흐름에서 기존의 전통적 표현 매체를 통한 미술교육에서 사회의 흐름과 요구를 중시하는 미술교육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각 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 배경에 따른 다양한 양식들을 차용, 변용하여 이를 활용하는 절충주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비평적으로 수용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

24) 전지연, 「시각적 미디어 교육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6, p,15.

Collection @ chosun

체적 교육 내용으로서 시각매체를 통해 적극적 사회 흐름을 반영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 미술의 변화에 따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오늘날 미술교육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서양미술 위주의 일원적인 입장에서 대중문화와 매체의 다원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실험을 통한 미술의 주제, 영역 및 매체·기법이 확장 및 장르의 통합에 따른 미술교육과 생활과의 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그래픽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시각에서 미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대두 되었으며 이를 습득하는 과정을 위한 시각매체를 활용한 미술교육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현장성이란 측면에서 학습자의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각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미술이라는 경쟁사회의 극복과, 용어의 변화, 사회와 문화의 확장, 일상의 중요성이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가. 경쟁사회의 극복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 지구화, 지식사회, 무한 경쟁의 지구화라는 담론을 배경으로 구성되었지만, 그런 담론의 이면에 수반되어 있는 위험사회화, 위험의 지구화라는 문제는 철저히 간과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사회 문화적 재난과 붕괴하는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위험사회라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다. 지식편향교육과 입시 중심 교육이 그와 같은 위험 사회화를 가속화시키는 불길이라면, 이 파괴적 불길을 진화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문화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극적인 채택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산업화 시대만해도 유지되던 사회문화적 유대를 간직하고 있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거의 무방비 상태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과정에서 방출되는 감성과 인성의 황폐화와 외로움, 신체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그나마 의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감성과 인성이 파괴되어 오직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만 몰두하는 로봇과 같은 인지기계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감

Collection @ chosun

성과 인성과 신체의 회복과 발달은 추상적인 당위가 아니라 진행 중인 사회문화적 재난에 대한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술교육은 이런 점에서 단지 개인에게 교양을 키워준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질병 상태에 처한 개인들에 대한 감성 치료이자 사회문화적 재난에 대한 정책적 치유책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예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있는 것도 이와 같은 치유에 대한 자연 발생적 욕구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나. '미술' 용어의 변화

사회 문화 교육은 치유적인 역할을 해주며 미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문화속에서 시각예술로 이루어진다. 특히 현대와 같이 시각적 정보들이 쏟아지고 이해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은 당연히 교육의 몫이 되어야한다. 오늘날의 시각문화란 다양한 장르와 관련을 맺는다. 회화는 물론 TV,영화, 연극, 웹 등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시각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들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각각의 예술 장르는 서로의 영향을 주며 간섭하고 침투하기도 한다.

한편 이 시점에서 미술이란 용어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어원적으로 미술이란 '아름다움'이란 의미의 영어단어이다. 하지만 현대 미술표현은 아름다움만을 표현하지 않는다. 공포, 분노, 숭고함, 사회적 관계와 소통, 이해 등 무한하게 나타내며 미술이란 시각문화를 포함할 수 없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현재 시각문화를 포함 할 수 있는 미술의 포괄적인 용어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25]

다. 사회와 문화의 확장으로

오늘날에는 순수하게 한가지의 감각에 호소하는 매체는 드물다.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실제로 시각문화라는 용어는 다문화적 이고, 복합 양식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 상호적 이며 학제간 성격을 갖는다. 시각문화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25) 김정선, 「시각적 의사소통의 이해에 관한 연구」『美術敎育論叢 』, 제 18권 3호, 2004, pp,24-27.

Collection @ chosun

적, 정치적, 경제적이며, 동시대적인 것으로 다양한 역사적 형식들 간의 연계를 포함한다. 교육에서 현장성은 동시대의 맥락 안에서 동시대의 학습자를 교육함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의 미술계의 실제에서 표현이란 더 이상 형식적이고 탈 맥락적인 사고를 통해서가 아닌 일상의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소통되는 것이다. 미술은 이제 시각예술, 시각문화의 범주로 확장되어 개인의 시각이미지의 표현과 향수 행위는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대중적 보급은 개개인의 표현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시각이미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교육이 문화교육이란 커다란 범주 안에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 일상의 중요성

새로운 시대는 테크놀로지로 말미암아 이미지의 생산이 더욱 가속화되는 사회이며 “특별한 것에 대한 일상생활의 우위”의 미학으로서 시각문화로서 미술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은 기호, 상징,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 일상생활의 이미지들은 우리 생활에서 쇼핑, 테마, 파크, 놀이동산, 각종 광고, 여행,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 보여 지는 것들로 이러한 일상에서의 미학적 경험을 미술교육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고 복잡한 편대의 시각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시각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력과 비판력, 즉 문화 해독력으로 확장된다. 결국 다양한 문화 현상들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건강한 문화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는 능력은 프리드먼(Freedman)이 주장한대로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지녀야 할 중요한 능력이므로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목적은 유능한 민주시민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3. 시각문화에 의한 미술교육 방법

Collection @ chosun

시각문화에 기초한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문화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일상적인 미적체험의 중심을 이루는 다양한 대상들을 교육내용으로 삼게 된다. 여기에는 미술계가 공인한 순수 미술품 외에도 패션, 광고, 정원디자인,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대중적이고 가상적인 영상이미지, 쇼핑물, 놀이동산 등을 포함한다. 즉, 학습자들에게 광범위한 시각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시각적 인공물을 주체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게하며 다양한 시각문화를 창조하는 작가들의 관점을 작품제작에 이용하고 새로운 매체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시각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 문화의 특성에 비추어 미술교육에서 고려해야할 방법으로 김정선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26]

가. 시각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시각 중심의 문화적 조건들은 학생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교육학자들은 규범적인 미술만으로 제한을 두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일상적 경험과 문화 안에서 비롯되는 이미지들로 시작해야한다. 미술교육에서는 이 점과 관련하여 이미지의 선택의 문제와 시각에 우위를 두는 두 가지의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시각적인 것의 다양화는 선택의 문제를 야기한다. 예술과 기술이 합해지면서 가속화되는 시각적 인공물의 다양화는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상업자본에 의한 이미지의 끊임없는 창조는 아이들을 단순 소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일상의 맥락에서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여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문화란 일상의 경험이다.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술품 그 이상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작품이 존재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이다. 미술

26) 김정선, 「시각문화의 개념 정의를 통한 미술과 내용으로서의 가능성 탐색」, 『조형미술교육논총』 제10호, 2003, pp.90-96.

Collection @ chosun

작품이란 표면적 형식과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즐고, 보고, 보여주고, 사고, 공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27] 이미지를 현재의 맥락에서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적 이해를 넘어서 작품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기원, 본성, 제한점 등의 맥락적 이해를 중시해야하며 더 나아가 학습자의 맥락까지를 강조해야하는 것이다.

다.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포함한다.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대화를 위한 그 문화의 도구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은 인터넷, TV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미디어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의 시대이고 정보화된 시대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의 활용에 있어서 민주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문맹이나 정보의 집중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학습자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발전하는 과학 기술 만큼 표현주제나 내용도 발전하는가에 있다. 시각문화를 다루는 미술교육에서의 내용은 단지 이미지, 대상이 아니라 주제의 경험이어야 한다. 특히 단순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미디어인가', '미디어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라. 다학문적 개념으로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TV프로그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모든 재현물을 다루는 시각문화교육은 현재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시각적 경험의 풍부함을 해석하고 분석하고자하는 초한문적 프로젝트이다.[28] '시각문화'라는 용어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시각문화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다학문적이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학과 중심 교육과정과 교수체재에서는 통합적 접근하는 것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교

27) Freedman, Social Perspectives on Art Education in the U.S.: Teaching Visual Culture in a Democracy. *Studies in Art Education* 41(4), 2000, pp.314-329, 김정선, 「의사소통 중심의 시각문화교육을 통한 미술교육 개선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p.21에서 재인용

28) Sullivan, G, Seeing Visual Culture, Studies in art Education 44(3), 2003, pp.195-196, 김정선, 「의사소통 중심의 시각문화교육을 통한 미술교육 개선 연구」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46에서 재인용

Collection @ chosun

육과정이나 협동 교수체재와 같은 현실적 토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생존과 여가와 학문을 위하여 말과 글을 배우기에 집중했듯이 이미지 중심의 오늘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은 시각적 문해력을 가진 개인이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하여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다. 시각적 이미지가 난무하는 오늘날에 시각이미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은 시각문화교육의 기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제3장. 미술 영화분석과 교과서 도판 분류

제1절. 감상교육의 실태 및 영화가 갖는 교육적 의의

1.감상교육의 실태

<표 8>. 시각문화에 대한 흥미 분석도[29] N=72

문항	질문내용	응답내용	응답자수	비율(%)
1	○시각문화에 대한 흥미는 어느 정도인가?	○대단히 흥미있다.	20	27.7
		○보통이다.	34	47.2
		○흥미가 없다.	18	25.1
2	○시각문화의 감상 중 가장 관심이 있는 회화 영역은?	○2차원의 평면	26	36.1
		○3차원의 입체	10	13.8
		○4차원의 영상	38	50.1
		○기타		

<표 9> 미술 감상의 저해 요인 분석[30] N=72

문항	질문내용	응답내용	응답자수	비율(%)

29) 최인순, 「마인드맵을 활용한 시각문화 감상교육」.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22

30) 상게서, p.23.

dCollection @ chosun

1	○미술과 감상 학습시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작가 및 배경지식의 부재로 작품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23	31.8
		○무엇을 나타내려 하는지 생각해 내기 어렵다.	40	55.6
		○표현방식을 알아내기 어렵다.	2	2.8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5	6.8

최인순은 석사학위논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 표 8 >,< 표 9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냈다. < 표 8 >을 살펴보면 시각문화 감상교육 시 시각문화에 대한 흥미도는 '보통이다.'가 47.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시각문화 감상교육중 가장 관심있는 영역에서는 4차원의 영상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감상 수업 시 영상물을 가지고 감상교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표 9 >을 살펴보면 ' 작가 및 배경지식의 부재로 작품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와 '무엇을 나타내려 하는지 생각해 내기 어렵다.'가 55.6%와 31.8%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미술 작품 감상 시 배경지식의 부재로 인한 접근 방식 획득의 어려움과 작가의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감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감상 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각 기제를 활용한 감상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감상교육 시 이해증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작가의 생애나 시대적 배경,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미술영화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영화가 갖는 교육적 의의

오늘날 영화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관객동원이나 성장 가능

Collection @ chosun

성 측면에서 그 위상이 확고하다. 다른 다양한 종류의 공연예술이 인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 영화는 연령과 계층을 초월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영화는 영상으로 꾸며진 텍스트를 통해 대중들이 자신의 문제를 난해한 용어와 개념에 제약받지 않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대중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

동영상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인 영화는 실질적인 대상을 낱장의 필름에 담아 움직이게 만드는 실사의 형태로서 능동적인 대상을 카메라를 통해 움직임을 창출하는 원리이다. 여기서 카메라는 현존하는 대상물을 그대로 포착하여 재현하므로 인간의 눈과 흡사한 구조를 지닌 시지각적 관계와 가깝다. 또한 르네상스 이후 발전시킨 원근법을 기계적 수단으로 제시함으로써 회화적 범주와 많은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회화적 표현으로서의 형상과 이미지는 단순한 모방이나 선택적 모사가 아닌 대상에서 관찰된 특성을 매체-평면적 표현으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작가 개인의 인간성을 드러내게 된다. 반면에 사진은 기계적 복제라는 기술적 의미가 강화되므로 영화와 회화와의 거리는 결국 회화에서의 작가의 손과 카메라의 문제가 결부된다.[31)]

이러한 영화가 지닌 교육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는 영상이 지닌 구상성과 직관성을 매개로 하여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감상하는 사람이 때로는 감정이입을 통해 메시지를 직접 느끼고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체험을 통해 공감 및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둘째, 교육현상과 사회문제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교과서와는 달리 영상화된 스토리 전개를 통해 사회적 삶과 접촉할 수 있게 해준다. 영화는 우리가 영상이미지를 통해 만나는 실천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인식이나 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에 의존하는 추상적 논의보다는 영화 속에서 가상적으로 구현된 현실체험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실천과 감동을 통해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

31) 조광석, 「영화, 비디오, 디지털」,『현대미술학 논문집』, 현대미술학회 편, 서울 : 문예마당. 2001 pp.31-51.

dCollection @ chosun

공하여 사회 개선을 향한 의지를 북돋을 수 있다.

셋째, 영화는 일상의 당연한 현상에 대해 비판적 거리감을 두고 고찰하게 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포착하게 해준다. 이는 영화를 통해 사회적 삶의 현상이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여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 눈여겨보지 못했던 삶을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 대중매체를 이용한 이해의 공유와 지적 상호작용이 중요시 되고 있는 디지털 문화시대에 영화는 일상에 숨어있는 의미 해석뿐만 아니라 이해와 공유를 통한 지적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지구촌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족과 민족 또는 문화와 문화 사이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직 · 간접적 교육 자료의 역할을 한다.[32)]

이와 같이 영화의 교육적 의미는 학습자들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반성적이고 실천적인 기회와 지적 상호작용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영화는 시간과 공간, 동작과 소리가 거의 완벽하게 결합되어 미술가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나타난 시각적 이미지 속에 내포된 시각적 테스트를 읽을 수 있고, 미적 요소를 발견하고 이해하여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제2절. 미술영화 분석

미술영화[33)]란 미술 작품 또는 미술가의 작품 제작 과정이나 그의 생활을 다룬 기록영화를 말하는 것이다. 미술영화는 미술가의 생활과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명화가 어떻게 제작되어졌는지 보여줌으로써 미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학습자의 인식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1. 미술영화 목록 조사

32) 정영근. 『영상문화와 세계화 시대의 교육』. 서울 : 문음사, 2004, pp.68-73

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Collection @ chosun

2009년 4월까지 개봉한 미술영화를 등장하는 미술가, 미술가가 활동하던 시기, 미술영화에 등장하는 작품과 영화가 만들어진 제작년도 및 감독 순으로 정리하면 <표2>과 같다. 미술영화의 시대별 구분은 교과서 도판분석에서 사용하는 시대상의 구별방법을 사용하였다.

< 표 10> 미술영화 목록

	영화제목	미술가	사조	제작년도	감독
1	고뇌와 환희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1965	캐럴 리드
2	아르테미시아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 (1593-1652)	이탈리아 바로크	1997	아네스 메를레
3	카라바조	카라바조(1571-1610)	이탈리아 바로크		
4	렘브란트	렘브란트 판 린 (1606-1669)	네덜란드 바로크	1930	
5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요하네스 얀 베르메르 (1632-1675)	네덜란드 바로크	2003	피터 웨버
6	물랑 루즈	틀루즈 로트(1864-1901)	후기 인상주의	1952	존 휴스턴
7	로트랙	틀루즈 로트(1864-1901) 수잔 빌라동(1865-1938)		1998	로저 플랑송
8	물랑 루즈	틀루즈 로트(1864-1901)		2001	바즈 루어만
9	열정의 랩소디	빈센트 반 고흐 (1853-1890) 폴 고갱(1848-1903)	후기 인상주의	1956	빈센트 미넬리
10	빈센트와 테오	빈센트 반 고흐 (1853-1890)		1990	알트만
11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1853-1890)		1991	모리스 삐알라
12	파라다이스 파운드	폴 고갱(1848-1903)	후기 인상주의		

dCollection @ chosun

13	까미유 끌로델	까미유 끌로델 (1864-1943) 오귀스트로댕(1840-1917)		1988	브루노 뉘탕
14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 (1862-1918)	상징주의, 표현주의	2006	라울 루이즈
15	모딜리아니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1884-1920)		2004	믹 데이비스
16	피카소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1881-1973)		1996	제임스 아이보리
17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1907-1954)	구상 표현주의	2002	줄리 테이모
18	사랑의 악마	프란시스 베이컨 (1909-1992)	구상 표현주의		
19	폴락	잭슨 폴락(1912-1956)		2000	에드 해리스
20	바스키아	장-미셸 바스키아 (1960-1988)		1996	줄리언 슈나벨
21	취화선	오원 장승업 1843(헌종9)-1897(광무1)		2002	임권택
22	이중섭	이중섭(1916-1956)		1975	곽정환
23	미인도	김홍도, 신윤복			

2 .미술영화 양식별 분류

서양미술영화의 시대별 구분은 선사-고대(기원전 ~7세기), 중세(8 ~ 13세기),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신고전주의 이후(18 ~ 19세기), 인상주의 이후(1900~ 1945),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 현재)로 구분하였다.

국내미술영화의 시대별 구분은 크게 선사시대(70만년전~기원전), 삼국시대(기원전 57~935), 통일신라(668~1392), 조선시대(1392~1897), 근·현대(1897~현재로 구분하였다.

<표 11> 미술영화에 등장하는 화가의 양식별 분류 및 활동시기 분포도

1)서양

Collection @ chosun

시대		미술영화	비율(%)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0
중세	(8 ~ 13세기)		0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고뇌와 환희(미켈란젤로) ·아르테미시아(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 ·카라바조(카라바조) ·렘브란트(·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요하네스 얀 르베르)	25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물랑루즈 195 ·로트랙 ·물랑루즈 2001(틀루즈 로트랙) ·열정의 랩소디(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와 테오 ·반 고흐 ·파라다이스 파운드(폴 고갱) ·	35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피카소 ·모딜리아니(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클림트 ·까미유 끌로델	20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프리다 칼로 ·사랑의 악마(프란시스 베이컨) ·폴락(잭슨 폴락) ·바스키아(장-미셸 바스키아)	20
계			100

2)국내

		미술영화	비율(%)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삼국시대	(기원전57~ 935)		
통일신라	(668~1392)		
고려시대	(918~1392)		
조선시대	(1392~1897)	.취화선 (오원 장승업) . 미인도(김홍도, 신윤복)	66.6
근대	(1897~1945)	.이중섭	33.3

dCollection @ chosun

현대	(1945~현재)		
계			99.9

미술영화를 시대 순으로 정리하여 퍼센트로 나타내면 <표 >과 같다. <표 >을 살펴보면 중세 이전시기를 살았던 화가를 대상으로 한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신인상주의 화가를 대상으로 한 영화가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로크시대 화가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25%,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의 화가를 대상으로 한 영화가 각각 20%로 나타났다. 신고전주의 이후(18~19세기)의 화가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지만 한 화가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 화가의 삶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한 점이 단점이다. 또 국내화가의 삶을 다룬 영화가 3편밖에는 만들어지지 못하여 서양화가를 대상으로 한 영화보다 영화로 제작되는 것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제3절.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영역 도판 분류

미술 작품이나 조형물 등의 감상활동은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하고 미술과 가깝게 접근 하는 방법을 배워 생활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감상 활동은 표현 활동의 동기 유발이며, 작품이나 문화유산을 보는 안목을 높임으로써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따라서 미술이 각 시대나 민족, 지역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작품을 통하여 당시의 사상, 종교, 문화와 미술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양식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감상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작품의 연대나 작가명, 작품명 등을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한 감상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감상 영역은 미술 비평과 미술사를 하부 영역으로 두어 구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기성 작가의 작품 뿐 아

Collection @ chosun

니라 학생들 서로간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 감상 관점을 선정하고 활용하여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비판해 봄으로써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미술품을 관람하는 모습과 함께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도판, 인터넷을 활용한 작품감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화면이 캡쳐 되어 나타난 도판, 작품감상의 단계 및 비평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적인 도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품 감상 보고서의 실례를 보여주는 도판 등이 교과서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 감상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실제로 특정 작품을 예시로 게재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에서 제시된 '주제 표현','표현 방법','조형요소와 원리','표현재료와 용구'등의 필수 학습요소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이러한 요소별로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이에 따른 질문에 대한 학생의 예시 답안을 보고서 형식으로 게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요소를 기초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교 교육으로서의 비평 지도에 있어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펠드먼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미술 비평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술비평을 통해 통찰력, 사고력, 분석력, 판단력, 논술력 등을 계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잘 부합되고 있다.

다음으로 미술사 부분의 내용을 알아보겠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문화유산 이해라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시대별·양식별 특징을 이해하며, 미술의 특징과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미술품을 통해 문화적·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미술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함께 미술가의 표현 특징도 같은 맥락 속에 고찰 할 수 있다.

과거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 연계되며, 현재와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

Collection @ chosun

사의 지도는 필요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미술과 다른 나라의 미술을 비교하여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미술문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게끔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상영역에 수록되어 있는 도판은 이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미술, 동양의 미술, 서양의 미술을 시대별·양식별로 구분하여 각 출판사별로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국내, 동양, 서양의 시대별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국내의 시대별 구분은 크게 선사시대(70만년전~기원전), 삼국시대(기원전 57~935), 통일신라(668~1392), 조선시대(1392~1897), 근·현대(1897~현재로 구분하였다.

둘째, 동양의 나라 분류는 도판 구성의 빈도가 높은 중국, 인도, 일본으로 구별을 하였고, 도판 수록 빈도 수가 적은 그 이외의 나라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중국의 시대별 구분은 선사시대(B.C.5000~1500), 은.주(B.C 1000~300), 춘추전국 시대(B.C770~403), 진·한(B.C 221~206 ~AD 220), 위진남북조북조:(336-~581) , 남조:(317-~589), 수·당(581-618-906), 송·원(960~1368), 명·청(1368~1900), 근-현대(1900~현재)로 구분하였다.

인도의 시대별 구분은 고대 인더스 문명 (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B.C. 317-180), 슝가왕조(B.C 185-78), 쿠샨왕조(B.C78- A.D. 226) 굽타왕조(380~606), 팔라왕조(750- 1288), 무굴왕조(1451-1526), 근-현대(1526~현재)로 구분하였다.

일본의 시대별 구분은 아스카 시대(552-645), 나라 시대(710-794), 헤이안 시대(794-1185), 가마쿠라 시대(1185-1333), 무로마치 시대(1333-1573), 모모야마 시대(1573-1615), 에도 시대(1603-1867), 근-현대(1867~현재) 로 구분하였다.

셋째, 서양의 시대별 구분은 선사-고대(기원전 ~7세기), 중세(8 ~ 13세기),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신고전주의 이후(18 ~ 19세기), 인상주의 이후(1900~ 1945),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 현재)로 구분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영역별로 이와 같은 시대별 구분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를 각 출판사별로 도판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고등학교 미술교과서 감상 영역의 도판 분류

Collection @ chosun

가. 국가별 분석

다음은 감상영역의 목표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을 이해한다는 학습목표에 따란 감상영역의 참고 작품을 국가별로 나누어 분류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가별 참고작품을 얼마나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양과 우리나라, 서양의 참고 작품 도판의 비율을 분석하면 아래의 < 표12 >와 같다.

<표 12>국가 별 도판 수 분석(%)

	국내	동양	서양	
(주)교학사	21.8	4.1	74.1	100
교학연구사	25.5	3.2	71.3	100
금성출판사	39.0	4.0	57.0	100
대한교과서	26.4	1.7	71.9	100
(주)두산	30.8	1.6	67.6	100
삶과 꿈	41.1	10.5	48.4	100
시공사	19.3	0.4	80.3	100
천재교육	41.9	4.1	54.0	100
평균	30.73	3.70	65.58	

감상영역에서 제시된 도판의 국가별 분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서양 문화권의 도판 위주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나라의 미술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의 경우 서양문화권의 도판이 압도적이며, (주)교학사, 교학연구사, 대한교과서도 서양 문화권 중심의 도판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삶과 꿈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에 비애 우리나라 미술과 서양 미술의 도판을 대등하게 싣고 있으며,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동양 미술권의 비중도 타 교과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천재교육의 경우도 서양 권과 우리나라의 도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7차 미술 교육과정의 내용 중 다양한 문화의 체험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의 정체성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교과서나 (주)두산 , 시공사 등에서도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동양권 미술 문화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타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평균 비율에 너무 못 미치는 등 형식적인 측면이 보여 진다. 즉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감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

dCollection @ chosun

기보다는 서양미술 중심의 미술사의 흐름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미술사적 지식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감상영역이 미적체험을 유발하고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순수한 감상을 위한 텍스트로 사용되기보다는 평가를 위한 단순 암기나 참고서 개념 정도로 사용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상영역에서 기존의 연대표를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표 작품을 대응시키는 방법보다는 능동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유발을 스스로 유도하도록 기존의 지식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미시적이고 세밀한 감상 능력과 분석력, 판단력을 길러주고, 다양하고 세분화된 감상대상과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주체적인 감상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 표현양식, 시대 양식에 따른 분류

<표 13> 국내 미술작품 분류

		선사 (70만년전~기원전)	삼국시대 (기원전57~935)	통일신라 (668~1392)	고려시대 (918~1392)	조선시대 (1392~1897)	근·현대 (1897~현재)	계
교학사	회화		2			4	3	9
	조소		2	1			1	4
	디자인·공예	2			1	1		4
	건축		1		1			2
	기타							0
	계	2	5	1	2	5	4	19
교학연구사	회화	1	2		1		7	11
	조소		2				1	3
	디자인·공예	1	2		1	1		5
	건축		1	1	1	1		4
	기타							0
	계	2	7	1	3	2	8	23

Collection @ chosun

금성출판사	회화		1			3	6	10
	조소		3				4	7
	디자인·공예	2	3		1	3		9
	건축		1			1		2
	기타				1		2	3
	계	2	8	0	2	7	12	31
대한교과서	회화					16	12	28
	조소		1	1			2	4
	디자인·공예					1		1
	건축			1		2		3
	기타					1		1
	계	0	1	2	0	20	14	37
두산	회화	1	1		1	9	6	18
	조소	1	1				4	6
	디자인·공예				2	1		3
	건축			1				1
	기타						1	1
	계	2	2	1	3	10	11	29
삶과꿈	회화	1	3		3	7	3	17
	조소		5		1		4	10
	디자인·공예	3	3	1	3	3	1	14
	건축		2	2	2	2	1	9
	기타							0
	계	4	13	3	9	12	9	50
시공사	회화		1		1	9	9	20
	조소		1	1			11	13
	디자인·공예		1		1	3		5
	건축		1			2		3
	기타	1					2	2
	계	1	4	1	2	14	22	44
천재교육	회화		3		2	11	16	32
	조소		2	1	1		2	7
	디자인·공예	7	3	2	2	3		16
	건축		3	5	2	1	2	13
	기타	1			1			2
	계	8	11	8	8	15	20	70
합계		20	51	17	30	85	97	303

<표 14> 동양의 미술작품 분류

Collection @ chosun

		교학사	교학연구사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두산	삶과꿈	시공사	천재교육	계
중국	선사						1			1
	은·주	1	1				1,2		1,1	7
	춘추 전국						1,1			2
	진·한	1,1	1,2	1,1		1	1,1,1		1	13
	위진남·북조			1	1,1	1	1,1,1,2		1	9
	수·당	1		1			2,2		1,1	8
	송·원		1		1		2		1	5
	명·청	2	1	2			1,2,1		1	11
	근·현대						1			1
	계	6	6	6	3	2	25	2	8	58
인도	고대인더스 문명						1			1
	마우리아 왕조						1,1			2
	슝가 왕조	1								1
	쿠샨 왕조	1			1	1	2		1	6
	굽타 왕조	1					1,1		1	4
	팔라 왕조		1			1	1		1	4
	무굴 왕조	1,1	1				1,1		1	6
	근·현대									0
	계	5	2	0	1	2	10	0	4	24
일본	아스카		1							1
	나라				1			1		2
	헤이안							1		1
	가마쿠라									0
	무로마치								1	1
	모모야마							1	1	2
	에도		1	1					1	3
	근·현대								1	1
	계	0	2	1	1	0	0	3	4	11
기타	스리랑카		1							1
	페르시아			1						1
	아프가니스탄			1			1			2
	캄보디아			1			1			2
	히바			1						1
	인도네시아						1			1
	계	0	1	4	0	0	3	0	0	8
합계		11	11	11	5	4	41	2	16	101

dCollection @ chosun

<표 15>서양의 미술작품 분류

		선사~고대 (기원전~7C)	중세 (8~13C)	르네상스이후 (14~17C)	신고전주의 이후 (18~19C)	인상주의 이후 (1900~1945)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계
교학사	회화	3		2	1	5	7	18
	조소						3	3
	디자인·공예	1						1
	건축	2					1	3
	기타						2	2
	계	6	0	2	1	5	13	27
교학연구사	회화	3	1	3	4	11	7	19
	조소	6	1			1	2	10
	디자인·공예	1					1	2
	건축	1	2					3
	기타						3	3
	계	11	4	3	4	12	13	47
금성출판사	회화	2		8	5	9	14	38
	조소	4		2		1	5	12
	디자인·공예	2						2
	건축	2		1				3
	기타						2	2
	계	10	0	11	5	10	21	57
대한교과서	회화		1	1	1	11	11	25
	조소	2		1		2	5	10
	디자인·공예							0
	건축		1					1
	기타						2	20
	계	2	2	2	1	13	18	38
두산	회화	1	3	2	2	7	11	26
	조소	3		1		1	3	8
	디자인·공예							0
	건축	1	2				1	4
	기타						3	3
	계	5	5	3	2	8	18	41
삶과꿈	회화	3	5	7	4	11	8	38
	조소	8	1	4	1	2	4	20
	디자인·공예	3			1			4
	건축	5	5		1	1		14
	기타						2	2
	계	19	11	11	7	14	16	78

dCollection @ chosun

시공사	회화	1		2			3	6
	조소	2	1	1		1	4	8
	디자인·공예							0
	건축							0
	기타						4	4
	계	2	1	3	0	1	11	18
천재교육	회화	4	7	7	7	15	11	51
	조소	6		2	1	3	5	17
	디자인·공예				1			1
	건축	5	3	1		1		10
	기타						4	4
	계	15	10	10	9	19	20	83
합계		70	33	45	29	82	130	389

작품을 표현 형식별로 구별하였을 때, 우리나라 작품에서는 회화 143개, 조소 53개, 디자인·공예 53개, 건축 37개, 기타 8개영역에서는 소수의 서예 작품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나타났으며, 동양은 회화 32개, 조소 28개, 디자인·공예 19개, 서예 2개로 서예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크게 한 영역에 치우침 없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서양의 작품은 회화 231개, 조소 88개, 디자인·공예 10개, 건축 38개, 기타 22개로 회화와 조소 영역의 도판이 월등하게 많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전체 도판 수 비교시, 서양 작품의 도판이 우리나라의 작품도판보다 많이 게재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서양 미술 작품의 디자인·공예 도판이 10점 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디자인·공예영역의 도판 57점은 다소 많이 게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이 57개의 작품은 단 1개의 작품만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 시대 이전의 작품으로 생활 전통 공예품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또한 서양의 미술 작품은 근·현대의 집중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작품은 근·현대의 작품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에 못지않게 조선 시대와 삼국시대에도 높은 비율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미술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전통 작품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상영역에 있어 미술사 부분을 분석하면서 8종의 교과서 중 특별하게 보여진 점은 시공사의 교과서이다. 앞에서 단원별 내용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시공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이다. 앞에서 단원별 내용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시공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Collection @ chosun

서 감상영역은 교과서의 가장 뒷부분에 수록되어 작품 감상의 방법과 비평 등의 내용을 다루고, 미술품을 시대별·양식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징을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한 시공사의 교과서는 각 단원에서 미적 체험·표현·감상 영역을 통합해서 다루고 있는 가운데서도 감상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두 개의 단원을 교과서의 중반부분과 후반부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으며, 학습내용에 있어서도 타 교과서와는 다른 형식을 갖추고 있다.

특정한 주제, 표현 방법, 그리고 특정한 시대의 작품만을 따로 분류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술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대표적인 우리의 미술문화유산의 도판을 게재하여 각 유물이 만들어진 배경 등을 알아보는 것을 학습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도 교육과정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내용을 담을 수 있겠으나, 국가별로 그리고 시대별·식별로 순차적으로 미술의 역사를 다루는 것에 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된 작품만을 감상하게 될 우려도 있다. 도판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이 입증되는 것이 동양 미술 작품으로는 단지 2작품만이, 그리고 서양의 미술작품에서도 적은 수의 도판이 수록되어 있는데다가 시대별 구분에 있어서도 현대 작품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작품은 어느 정도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교과서에서 근대 이후의 작품만을 따로 모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현대 작품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다른 교과서들과는 다른 체계로 감상 영역에 새롭게 접근하려고 시도는 좋게 평가되지만, 이와 같은 도판의 구성은 재정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분석방법들을 적용시켜 여러 작품이 감상의 분석 대상으로 골고루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금성출판사에서도 시공사의 교과서처럼 종교, 고학, 전쟁 등 특정한 주제와 미술을 함께 접목시켜 감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도판들이 고루 분배되어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미술사 연표와 함께 작품을 순차적으로 게재하는데 있어 각 시대별·양식별 특징이 서술되어져 있지 않아, 미술사를 학습하는데 있어서는 교과서의 도판과 함께 별도의 학습 자료가 요구되어진다.

Collection @ chosun

끝으로, 동양 미술사에서의 도판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서양미술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단원 구성에 있어서도 8종의 교과서 중 3종의 교과서에서는 동양 미술을 따로 다루고 있지 않고 서양과 통합하여 다른 나라의 미술로 구분하고 있다. 동양 미술 내에서는 중국의 작품이 가장 많이 게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도, 일본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2종의 교과서에는 1점씩이라도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인도네시아 등 기타 나라의 작품 또한 다양하게 게재하고자 했다.

또한, 동양 미술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문화교유를 통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불상과 탑파 양식의 전래와 영향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도판을 통해 알 수 있다.

8종의 교과서는 체계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친구들의 작품에서 표현방법과 의도 등을 살펴보기, 우리나라와 동양, 서양 미술픔의 미의식과 시대성, 양식 등을 비교해 보기 쉽도록 공간과 시대별로 분류하고 있는 등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친구 작품 감상,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동양 미술의 관계, 서양 미술의 양식은 제7차 교육과정이 감상영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학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면서 지닌 미적 가치를 찾도록 하고 있다.

제4절. 미술영화를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지도방안

미술영화를 활용하여 감상교육을 한다면 교육현상과 사회문제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교과서와는 달리 영상화된 스토리 전개를 통해 사회적 삶과 접촉할 수 있게 해준다. 영화는 우리가 영상이미지를 통해 만나는 실천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인식이나 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에 의존하는 추상적 논의보다는 영화 속에서 가상적으로 구현된 현실체험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미술가의 생애나 미술작품의 제작과정과 작가가 살았던 사회적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미술작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Collection @ chosun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미술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술영화에 나타난 시각적 이미지 속에 내포된 시각적 테스트를 읽을 수 있고, 미적 요소를 발견하고 이해하여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술 감상교육을 할 때 영화를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인식의 전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미술영화를 활용한 감상 교육의 예시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업 지도안 주제 및 내용 구성

가. 단원명 :

(1) 대단원 : 감상

(2) 소단원 : 미술문화 유산 이해

나. 단원 설정의 이유

현대 미술의 특징은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미술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시각매체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만큼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들의 생활수준과 여가 생활의 비중도 커졌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기능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점점 미술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미술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본 미술수업을 통해 지루하게만 느꼈던 미술작품 감상수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술영화 감상을 활용하고자 한다. 어렵게만 느꼈던 미술 감상을 즐기면서 감상한다면 더 나은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해 질 것이다.

다. 학습 목표

(1) 서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2) 미술영화감상을 통하여 미술가가 살았던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작품제작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3) 미술영화감상을 통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증폭시켜 학습 성취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라. 학습자료

-교사: VCR, 빔 프로젝트, 슬라이드, 참고 작품, 미술영화
-학생: 노트, 필기도구

마. 지도 방법 및 지도상의 유의점

(1)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유도한다.
(2) 미술영화는 대중성을 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픽션이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3) 미술영화를 통하여 작가의 시대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유로운 토론과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5) 다양한 미술영화를 보여주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6) 작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을 언급하여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미술 작품을 잘 감상하게 한다.
(7) 과제를 제출하여 미술의 사조들을 조사해 오도록 한다.
(8) 최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2. 수업지도안 전체 회기 및 적용방법

수업 지도안의 전체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을 보면 < 표 16 >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표 16 > 차시별 교수· 학습 계획 (총3시간, 1시간은 50분)

주제(단원명)	차시	주요학습내용	학습자료
미술 문화 유산 이해 -서양미술	1/3	▸서양미술사조별 특징과 주요 작품 감상 ·단원 학습목표 제시 ·서양미술	각 시대별 참고 작품, 관련 VCR자료, 인터넷 사이트 목록, 화집 등
미술 문화 유산 이해 -서양미술	2,3/3	▸미술영화감상을 통한 미술작품 감상의 이해 ·전시학습에서 배운 서양미술사조의 특징과 작품 반복학습 ·미술사조별 대표하는 미술가의 생애를 다룬 미술영화 감상 ·미술영화를 통해서 본 미술 작품 감상지 작성	각 시대별 참고작품, 미술영화 VCR

3. 구체적 수업지도안

2,3차시: 미술문화 유산 이해

-미술영화를 통한 감상교육

<표 17 > 미술영화를 활용한 미술작품 감상 수업지도안

대단원	감상	중단원	미술문화의 이해	소단원	서양미술-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차시		2/2
학습목표	1. 서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2. 미술영화감상을 통하여 미술가가 살았던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작품제작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				

dCollection @ chosun

	일 수 있다. 3. 미술영화감상을 통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증폭시켜 학습 성취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4. 미술영화 감상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도요점	1. 미술영화는 대중성을 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픽션이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2. 미술영화를 통하여 작가의 시대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작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을 언급하여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미술 작품을 잘 감상하게 한다. 4. 과제를 제출하여 미술의 사조들을 조사해 오도록 한다.
학습준비	·교사 : VCR, 빔 프로젝트, 슬라이드, 참고 작품, 미술영화 ·학생 : 노트, 필기도구

교수 학습 활동

단계	학습요소	교수 학습 내용		학습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5분	*출석점검 *선수학습점검 *본시학습목표 제시	*인사, 출석 확인 *전시학습 시간에 배운 미술사조별 특징 및 주용 작품 상기하기 *본 단원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인사 *자기가 알고 있는 문항에 대해 소신껏 대답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질의 응답 일제	
전개85분	*본시 학습 내용 설명 *미술영화 시청	*본시 학습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어려워만 하는 서양미술 감상에 대해 더 이상 어려울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키며 동기부여 한다. *미술영화감상을 통한 미	*본시 학습을 상기한다. *미술영화감상을 통한 작품제작의 의도 및 시대상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수업 전 VCR 기계 이상 유무확인한 후 수업준비를	VCR

dCollection @ chosun

		술작품제작 및 미술가의 생애를 보여준다. *사조별 영화감상 목록 -르네상스 이후(14~17C) ·고뇌와 환희(미켈란젤로) ·아르테미시아(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 ·카라바조(카라바조) ·렘브란트(·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요하네스 얀 르베르) -신고전주의 이후(18~19C) ·물랑루즈 195 ·로트랙 ·물랑루즈 2001(틀루즈 로트랙) ·열정의 랩소디(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와 테오 ·반 고흐 ·파라다이스 파운드(풀 고갱) -인상주의 이후(1900~1945) .피카소 ·모딜리아니(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클림트 ·까미유 끌로델 -추상표현주의이후(1945~현재) ·프리다 칼로 ·사랑의 악마(프란시스 베이컨) ·폴락(잭슨 폴락) ·바스키아(장-미셸 바스키아)		한다. VCR 시청	
정리 10분		*이번 시간에 감상한 미술영화에 대한 감상일지 과제를 내주 다음차시 예고를 한다. *책상 및 주변 정리정돈을 시킨다.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인식한다. *책상 및 주변 정리정돈을 한다.	VCR 정리 및 수업후 교실 주변 정리정돈	

dCollection @ chosun

제4장 결 론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시각매체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각문화의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각문화의 올바른 이해 및 미술 감상교육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각문화영역의 한 부분인 미술영화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미술교과 '감상'영역에 대한 미술영화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술작품 감상의 이해력을 높이고 시각적 문해력을 향상시켜 비평적 감상교육학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고찰한 결과 시각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으며 시각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비주얼리터러시(Visual Literacy)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삶'이라는 용어를 통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술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논문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시각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시각문화속의 시각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포스트 모던시대에서의 시각문화 위상과 특성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시각문화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특징과 개념을 알아보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대사회는 곧 제3의 물결, 정보화 사회,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라고 명명 지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의 보편화 및 대중화'라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셋째, 시각문화교육을 통한 미술 감상교육으로 미술영화를 활용한 감상수업을 제시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Collection @ chosun

[미술영화를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수업은 미술작품 감상 시 미술가의 생애나 작품 제작과정을 앎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시각적 문해력도 길러 질것이라 보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은 주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하여 얻게 되는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이제 학교 미술교육은 표현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뛰어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학습자의 삶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소통하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이라는 취지 아래 시행되었지만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술 교과의 경우 고등학교 미술과의 단위수 축소와 선택교과로의 도입으로 인해 고등학생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결국 미술교과 교육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문화 시민으로서 또는 평생 학습 시대로의 현실 속에서 시각문화 미술교육은 성인으로서의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며 학교 현장의 인식 변화와 실천 의지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와 사회, 학습자 모두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참고문헌

<교과서>

고승희 외, 『고등학교 미술』. 서울:(주) 두산, 2003.
김정희 외, 『고등학교 미술』. 서울: 교학연구사, 2003.
노영자 외, 『고등학교 미술』. 서울: (주) 교학사, 2002.
이윤구, 『고등학교 미술』. 서울: 삶과 꿈, 2003.
이현표 외. 『고등학교 미술』. 서울: 대한교과서(주), 2002.
한윤성 외. 『고등학교 미술』. 서울: (주) 금성출판사, 2002.
홍명섭 외.『고등학교 미술』. 서울: (주) 천재교육, 2002.
홍선표 외. 『고등학교 미술』. 서울: 시공사,2002.

< 단행본 >

김정희 외.『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2008.
이규선 외.『미술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8.
이연식 .『미술영화 거들떠 보고서』지안출판사, 2005.
노영덕 .『영화로 읽는 미학』랜덤하우스중앙, 2006.
황영주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2003.
박정애.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서울: 시공사, 2001.
정영근. 『영상문화와 세계화 시대의 교육. 서울 : 문음사, 2004.
임정기외,『미술육의 이해와 방법』, 애경, 2006.
톰 앤더슨·멜로디 밀브란트. 『삶을 위한 미술교육』애경, 2007.

<학위논문>

김정선, 「의사소통 중심의 시각문화교육을 통한 미술교육 개선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김현영,「시각문화미술학습 환경설계 모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06.
전지연, 「시각적 미디어 교육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6.
조은미. 「미술교육과정에 나타난 미술감상 학습지도안 분석: 고등학교 1학년
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dCollection @ chosun

김희정.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에 따른 시각문화교육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한소영.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를 통한 감상단원 연구」, 2008.
최인순. 「마인드맵을 활용한 시각문화 감상교육」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서예진. 「맥락과 소통 중심의 시각문화 미술교육 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008.
김은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영된 미술감상 교육에 관한 연구」, 2008.

<전기 간행물>

김정선. 「'미술교육'에서 '시각문화교육'으로」 『새길을 여는 교육비평』 제20권, 교육비평. 2006.
김정선. 「시각적 의사소통의 이해에 관한 연구」,『美術敎育論叢』, 제 18권 3호, 2004
김정선.「시각문화의 개념 정의를 통한 미술과 내용으로서의 가능성 탐색」, 『造形美術敎育論叢』 제10호, 2003.
조광석. 「영화, 비디오, 디지털」, 『현대미술학 논문집』 4호. 『현대미술학회 』 서울 : 문예마당 2000.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미술』, 교육인적자원부, 1997.
양윤정외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연구 개발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5.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과정 개정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지침과 기준- 고등학교 미술 교과 선택과목」, 200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미술과 교육과정 <별책13>, 2007.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미술)」, 교육과정 자료 제 406호, 200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미술』, 교육과학기술부, 2008.

dCollection @ chosun

*출판사별 교과서 감상영역 도판 내용

(1) 교학사

교학사 출판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교학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분류

1) 국내 ( ) :%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빗살무늬토기(신석기) .잔무늬거울(청동기)	2(10)
삼국시대	(기원전57~ 935)	.오회분 4호묘의 천장 및 받침돌(고구려) .연가칠년명금동 여래입상(고구려) .산수도깨비무늬 벽돌(백제) .정림사지5층석탑(백제) .천마도(신라)	5(25)
통일신라	(668~1392)	석굴암본존 불상	1(5)
고려시대	(918~1392)	.부석사무량수전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무늬 정병	2(10)
조선시대	(1392~1897)	강희안 .분청사기철화물고기무늬병 .함윤덕(16C) .심사임당 .김홍도 .강희언	6(30)
근대	(1897~1945)	.민복진(1927~) .이중섭 (1950)	2(10)
현대	(1945~현재)	.김환기 (1958) .이상범 (1960)	2(10)
계			20 (100.0)

2) 동양

dCollection @ chosun

나라	시대	연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 주(周)	(B.C 1000~300)	갑골문자(은).	1(16.6)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221~206~AD220)	말과마부의토용(진), 고개지(동진)	2(33.3)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수(隨)·당(唐)	(581-618-906)	삼채부인기상(당)	1(16.6)
	송(宋)·원(元)	(960~1368)		
	명(明)·청(青)	(1368~1900)	동기창(명), 조지겸(1865)	2(33.3)
	근-현대	(1900~ 현재)		
계				6(100)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난순주의원형장식	1(20.0)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미술	(B.C.78-A.D.226)	보살입상	1(20.0)
	굽타 왕조의 아잔타미술	(380-606)	궁정도	1(20.0)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타지마할	1(20.0)
	근-현대	(1526~현재)	낙타싸움(1610)	1(20.0)
계				5(100.0)

3) 서양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알타미라동굴벽화(구석기) .빌렌도르프의비너스(구석기) .새사냥(B.C1400) .여인형상의 기둥(B.C420) .콜로세움 .테오도라의 초상(6C)	6(20.6)
중세	(8 ~ 13세기)	.샤르트르대성당	1(3.4)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Botticelli.S(1478) .Michelangelo.B(1509) .Rubens.P(1622)	3(10.3)

Collection @ chosun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Ingres.J(1814) .Delacroix.E(1826) .Millet.J(1864) .Monet.C(1876) .Gogh.V(1889)	5(17.2)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Boccioni.U(1913) .Chagall.M(1915) .Utrillo.M(1923) .Matisse.H(1939)	4(13.7)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Dubuflet.J(1901~1985) .Long.R(1945~) .Leger.F(1954) .de Kooning.W(1956) .Segal.G(1964) .Estes.R(1972) .Judd.D(1978) .Lichtenstein.R(1972) .Starling.J(1977~1983) .Francis.S(1982)	10(34.4)
계			29(100.0)

(2) 교학연구사

교학연구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표 5>과 같다.

<표 5> 교학연구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빗살무늬토기(신석기) .반구대암각화(청동기)	2(6.8)
삼국시대	(기원전57~ 935)	.사신도(고구려) .천마도(신라) .기마인물형토기(신라) .산수귀문전(백제) .정림사지5층석탑(백제) .굵은고리귀걸이(신라) .가야금동관(가야)	7(24.1)
통일신라	(668~1392)	.십일면관음보살상 .감은사지3층석탑	2(6.8)
고려시대	(918~1392)	.수월관음도 .청동은입사수금문정병 .경천사지10층 석탑	3(10.3)
조선시대	(1392~1897)	.김 시 .강세황 .안견(1447) .변상벽(17C) .수월화성팔달문(1796) .청룡사대웅전기둥(18C) .화각4층장(19C)	7(24.1)
근대	(1897~1945)	.윤호중 .이상범(1930) .김기창(1953) .이중섭(1953) .박내현(1952) .김환기(1962) .박수근(1962)	7(24.1)
현대	(1945~현재)	.장욱진(1986)	1(6.8)
계			29 (100.0)

dCollection @ chosun

2) 동양

나라	시대	연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 주(周)	(B.C 1000~300)	술잔(은)	1(16.6)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221~206~AD220)	병마용갱(진), 솥(한), 젊은부인(한)	3(50.0)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수(隨)·당(唐)	(581-618-906)		
	송(宋)·원(元)	(960~1368)	곽희(11C초)	1(16.6)
	명(明)·청(靑)	(1368~1900)	팔대산인(1694)	1(16.6)
	근-현대	(1900~ 현재)		
계				6(100)
일본	아스카 시대	(552~645)	반가사유상	1(50.0)
	나라 시대	(710~794)		
	헤이안 시대	(794~1185)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무로마치 시대	(1333~1573)		
	모모야마 시대	(1573~1615)		
	에도 시대	(1603~1867)	카쓰시카 호구사이 (1760~1849)	1(50.0)
	근-현대	(1867~현재)		
계				2(100.0)

dCollection @ chosun

인도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미술	(B.C.78-A.D.226)		
	굽타 왕조의 아잔타미술	(380-606)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아르다나리슈바라	1(50.0)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타지마할(1632~1653)	1(50.0)
	근-현대	(1526~현재)		
계				2(100.0)

3) 서양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로셀의 비너스(구석기) .라스코동굴벽화 .석판에 그린그림(청동기) .수변의 수림(B.C 1500) .그리스의 도기(B.C.5세기초) .콜로세움 .투트메스(B.C.1400) .테아노묘비(B.C375) .쿠르스묘상(B.C530~520) .아우구스투스상 .인물조각기둥(1145-1155)	11(23.4)
중세	(8 ~ 13세기)	.풍랑에시달리는배 .이콘 .솔즈버리대성당 .Giotto(1303-06) .피사대성당의 세례당과종탑 .Van Eyck(1434) .Raffaello.S(1510-11)	7(14.8)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Carevaggoo(1596-1602) .Claesz.P(1623) .Velazquez.D(1657) .Watteau.J(1718) .David.J(1784)	5(10.6)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Rodin.F(1880~1917) .Gericault(1819) .Turner.J(1844) .Daumier.H(1858-60) .Courbet.G(1854) .Millet.J(1857) .Gogh.V(1889) .Monet.C(1890) .Cezanne.P(1890) .Gauguin.E(1891) .Signac.P(1893)	11(23.4)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Picasso(1907) .Werfkin.M(1910) .Matisse.H(1911) .Tanguy.Y(1942)	4(8.5)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리히텐슈타인 .Pollock.J(1948) .Tinguely.J(1959) .Rothk.M(1956) .Oldenberg.C(1962) .Hockney.D(1967) .Beuys.J(1970) .Estes.R(1972) .Nauman.B(1983)	9(19.1)

Collection @ chosun

계			47 (100.0)

(3)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 표 6 > 금성출판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빗살무늬토기(신석기)	.부여송국리출토품(청동기)	2(5.4)
삼국시대	(기원전57~ 935)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신라) .금관(신라) .기마인물형토기(신라) .정림사지5층석탑(백제)	.우현리대묘철룡도(고구려) .금제관식(백제) .인왕상(신라) .마두각배(가야)	8(21.6)
통일신라	(668~1392)			0
고려시대	(918~1392)	.팔만대장정(11C초)	.청자상감운학문매병	2(5.4)
조선시대	(1392~1897)	.앙부일구 .백자상감모란문병 .정선(1734)	.경복궁정회루 .4층사방탁자 .신윤복	6(16.2)
근대	(1897~1945)	.고희동(1915)	.김환기(1938)	2(5.4)
현대	(1945~현재)	.이쾌대(1948) .김종영(1957) .이중섭(1958) .권진규(1967) .임직순(1970) .유영국(1980) .김세중(1984) .백남준(1993)외1	.박래현(1956) .김종영(1958) .변관식(1959) .이승조(1968) .김환기(1970) .최의순(1981) .최진욱(1992) .김호득(1997)	17(45.9)
계				37 (100.0)

2) 동양

나라	시대	연대	참고 도판	계

dCollection @ chosun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 주(周)	(B.C 1000~300)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221~206~AD220)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도철유정문방정, 무인상, 원강석굴	3(42.8)
	수(隨)·당(唐)	(581-618-906)	오우도, 한황	2(28.5)
	송(宋)·원(元)	(960~1368)	지등도	1(14.2)
	명(明)·청(靑)	(1368~1900)	화훼도(청)	1(14.2)
	근-현대	(1900~ 현재)		
계				7(100.0)
일본	아스카 시대	(552~645)		
	나라 시대	(710~794)		
	헤이안 시대	(794~1185)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무로마치 시대	(1333~1573)		
	모모야마 시대	(1573~1615)		
	에도 시대	(1603~1867)	호쿠사이(1831)	1(100.0)
	근-현대	(1867~현재)		
계				1(100)
기타	페르시아		날개달린 황소(B.C 522~486)	1(25.0)
	아프가니스탄		부다의 얼굴(4-5세기)	1(25.0)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안면탑(12세기)	1(25.0)
	히바		메드레세(16세기)	1(25.0)
계				4(100.0)

3) 서양

dCollection @ chosun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스톤헨지 .원추형항아리 .람세스Ⅱ세(B.C 550~400) .아폴로(B.C 350) .무희(B.C 50)	.라스코동굴벽화 .파르테논신전(B.C450) .네페르티티왕비(B.C14세기) .흑색항아리(B.C.540) .콜로세움(A.D 70-81)	10(17.8)
중세	(8 ~ 13세기)	.수태고지(12C)	.지오토(1304)	2(3.5)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아비뇽의피에타 .브루넬레스키(1420) .프라안젤리코(1440) .미켈란젤로(1534) .Velazquez.D(1650) .렘브란트(1665) .David.J(1793)	.도나텔로(1415) .얀반아이크(1434) .Leonardo davinci(1510-11)외 1 .엘그레코(1580) .베르메르(1660) .Hobbema.M(1689)	13(23.2)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Goya.F(1814) .들라크루아(1835) .모네(1872) .Seurat.G(1887) .고갱(1891)	.Delacroix.E(1830) .Cousbet.G(1849) .세잔(1879) .고흐(1890) .로댕(1898)	10(17.8)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피카소(1907) .들로네(1912) .몬드리안(1920) .무히라(1937) .Picasso.P(1937) .Johns.J(1958)	.칸딘스키(1910-11) .Duchamp.M(1917) .마티스(1932) .달리(1937) .무어(1938)	11(19.6)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자코메티(1947) .Bacon.F(1953) .Smith.D(1964) .클로즈(1975-76) .바자랠리(1978)	.Matisse.H(1953) .루이스(1961) .워홀(1967) .시걸(1977) .크리스토(1975-85)	10(17.8)
계				56 (100.0)

(4) 대한교과서

대한교과서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표 7>와 같다.

< 표 7 > 대한교과서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0
삼국시대	(기원전57~ 935)		0

dCollection @ chosun

통일신라	(668~1392)	불국사	1(2.5)
고려시대	(918~1392)	채색화(1350)	1(2.5)
조선시대	(1392~1897)	.미인도 .쌍계사대웅전 .강희안(1417-1464) .조속(1595-1668) .원각사지10층석탑 .종묘(1395) .정선(1676-1759) .강세황(1713-1791) .이재초상(18C) .김정희(1786-1897) .안견(1447) .신사임당(1504-1551) .황집중(1533-?) .김명국(1600-?) .분청사기(15C) .김홍도(1745-?) .책거리 .변상벽(17C) .장승업(1843-1897) .홍세섭(1832-1884)	20(51.2)
근대	(1897~1945)	.이중섭 .김은호(1929) .오지호(1939) .김경승 .고희동(1915) .윤효중(1940)	5(12.8)
현대	(1945~현재)	.박수근(1950) .김기창(1963) .박내현(1973) .김유선(1999) .이응로(1979) .남관(1984) .김환기(1962) .변관식(1969) .백윤기(1994) .박생광(1977) .이상범(1960)	12(30.7)
계			39 (100.0)

2) 동양

나라	시대	연대	참고 도판	계

dCollection @ chosun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 주(周)	(B.C 1000~300)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221~206~AD220)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원강석굴	1(50.0)
	수(隨)·당(唐)	(581-618-906)		
	송(宋)·원(元)	(960~1368)	곽희(1072)	1(50.0)
	명(明)·청(青)	(1368~1900)		
	근-현대	(1900~ 현재)		
계				2(100.0)

3) 서양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구석기) .밀로의 비너스(B.C 2세기)	2(5.1)
중세	(8 ~ 13세기)	.목판화(1280) .샤르트르성당 북쪽현관의 조각작품(1194) .스테인드글라스(13C) .밀라도대성당(15C)	5(12.8)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Hobbema.M(1689)	1(2.5)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Ingres.J(1808) .Dclacroix.F(1830) .Renoir.P(1892) .Courbet.G(1854) .Millet.J(1857) .Manet.E(1866) .Monnet.C(1872) .Seurat.G(1884) .Cezanne.P(1890) .Gogh.V(1890) .Munch.E(1893) .Gauguin.E(1894)	12(30.7)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Picasso.P(1909) .Brancusi.C(1912) .Duchamp.M(1917) .Klee.P(1922) .Kandinsky.W(1924) .Matisse.H(1943) .Chagall.M(1945) .Munch.E	8(20.5)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Pollock.J(1948) .Giacometti.A(1950) .Moore.H(1957) .Johns.J(1958) .Fontana.L(1962) .Stella.F(1967) .Hanson.D(1969) .Warhol.A(1967) .Christo.J(1972) .Oldengerg.C(1977) .Vasarely.V(1985)	11(28.2)

Collection @ chosun

계			39 (100.0)

(5) 두산

두산 출판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표 8>과 같다.

< 표 8 > 두산출판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울주천전리암각화(청동기)	1(3.3)
삼국시대	(기원전57~ 935)	.연가치련명금동여래입상(구구려) .천마도(신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백제)	3(10)
통일신라	(668~1392)	다보탑	1(3.3)
고려시대	(918~1392)	.수일관음도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나전대모국당초문염주합	3(10)
조선시대	(1392~1897)	.이상좌 .강희안(1417-1464) .이암(1499-?) .안견(1447) .김득신(1754-1822) .신윤복(1758-?) .정선(1734) .문방도 .이재초상 .분청사기철화어문병	10(33.3)
근대	(1897~1945)	.고희동(1915) .변관식(1899-1976) .김규진(1920) .인인성(1934) .이중섭(1953) .기환기(1957)	6(20)
현대	(1945~현재)	.강태성(1961) .박내현(1963) .권진규(1967) .남관(1984) .백남준(1992) .윤영자(2001)	6(20)
계			30 (100.0)

2) 동양

나라	시대	연대	참고 도판	계

dCollection @ chosun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 주(周)	(B.C 1000~300)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221~206~AD220)	병마용(진)	1(50.0)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원강석굴의불상	1(50.0)
	수(隨)·당(唐)	(581-618-906)		
	송(宋)·원(元)	(960~1368)		
	명(明)·청(青)	(1368~1900)		
	근-현대	(1900~ 현재)		
계				2(100.0)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미술	(B.C.78-A.D.226)		
	굽타 왕조의 아잔타미술	(380-606)	설법하는불타상(2~3세기)	1(50.0)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나타리자(10세기)	1(50.0)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근-현대	(1526~현재)		
계				2(100.0)

dCollection @ chosun

3) 서양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라스코동굴벽화(구석기) .파라오흉상 .사모트라케의니케(B.C 190) .콜로세움 .요나를 삼킨 물고기	5(11.9)
중세	(8 ~ 13세기)	.라스코동굴벽화(구석기) .파라오흉상 .사모트라케의니케(B.C 190) .콜로세움 .요나를 삼킨 물고기	5(11.9)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Rembrandt.H .Chardin.J .Ingres.J .Michelangelo.B(1501) .Leonardo da Vinci(1503) .Raffaello.s(1507)	6(14.2)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Daumier .Signac.P .Delacroix.E(1830) .Millet.J(1857) .Rodin.F(1881) .Monet.C(1886) .Gogh.V(1889)	7(16.6)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Utrillo.M .Matisse.H .GaudiA(1900-14) .Kandinskij.V(1909) .Braque.G(1913) .Maeke.A(1913) .Rouault.g(1937) .Picasso.P(1937	8(19.0)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Tingully.J .Cornell.j(1941) .de kooning. willem(1950~52) .Giacometti.A(1960) .Chagall.M(1967) .Le Witt.S(1968) .Hanson.D(1969) .Maria.W(1977) .Francis.S(1977~78) .Lichtenstein.R(1978) .Close.C(1997)	11(26.1)
계			42 (100.0)

(6) 삶과 꿈

삶과 꿈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9 > 와 같다.

< 표 9 > 삶과 꿈의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빗살무늬토기(신석기) .잔무늬거울(청동기) .임각화(신석기) .붉은간토기 항아리	4(7.6)

dCollection @ chosun

삼국시대	(기원전57~935)	.장군총(고구려) .금동대향로(백제) .마애삼존불(백제) .금관 .서수모양토기(신라) .미륵사지석탑(백제)	.백호도(고구려) .쇼토쿠태자상(백제) .산수무늬벽돌(백제) .천마도(신라) .반가사유상(고구려)외1점 .굽은토기항아리(신라)	13(25.0)
통일신라	(668~1392)	.성덕대왕신종 .군위석굴	.석굴암돔과 본존불상 .감은사지3층석탑	4(7.6)
고려시대	(918~1392)	.부석사무량수전 .청동 은업사 포류수금무늬정병 .나전대모국당초무늬염주합 .양류관음도 .청자상감 모란국화무늬과형 병	.철조석가여래좌상 .어제비장전 변상 .기마도강도 .월정사팔각9층 석탑	8(15.3)
조선시대	(1392~1897)	.부석사무량수전 .청동 은업사 포류수금무늬정병 .나전대모국당초무늬염주합 .양류관음도 .청자상감 모란국화무늬과형 병	.철조석가여래좌상 .어제비장전 변상 .기마도강도 .월정사팔각9층 석탑	11(15.3)
근대	(1897~1945)	.나혜석 .안중식(1913) .김복진(1925) .윤효중(1940)	.임용련 .고희동(1915) .성공회대성당(1926-96) .이중섭(1954)	8(15.3)
현대	(1945~현재)	.권진규 .허건(1976)	.김종영(1958) .권순형(1999)	4(7.6)
계				52(100.0)

2) 동양

나라	시대	연대	참고 도판	계

dCollection @ chosun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채도항아리	1(3.7)
	은(殷), 주(周)	(B.C 1000~300)	청동 굉(주), 갑골문(은), 금문(서주)	3(11.1)
	춘추전국시대	(B.C770~403)	무사용, 석고문	2(7.4)
	진(秦)·한(漢)	(221~206~AD220)	기사렵록류금구식, 만리장성(진-명), 예서(한)	3(11.1)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관음보살입상, 고개지, 반가사유상, 행서(동진)원강석굴 제20동굴,룽먼삭글	6(22.2)
	수(隨)·당(唐)	(581-618-906)	왕유(당), 이소도(당), 대안탑(당), 해서(당), 초서(당)	5(18.5)
	송(宋)·원(元)	(960~1368)	곽희(북송), 황공망(원)	2(7.4)
	명(明)·청(青)	(1368~1900)	동기창(명), 청화서과무늬주전자(명) 모유금문위각방형찰합(청), 천단기년전	4(14.8)
	근-현대	(1900~ 현재)	장다첸(1889-1983)	1(3.7)
계				27(100)
일본	아스카 시대	(552~645)	호류사 5층목탑	1(20.0)
	나라 시대	(710~794)	백제관음상, 반가사유상	2(40.0)
	헤이안 시대	(794~1185)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조수희화 회권	1(20.0)
	무로마치 시대	(1333~1573)		
	모모야마 시대	(1573~1615)	구마모토성	1(20.0)
	에도 시대	(1603~1867)		
	근-현대	(1867~현재)		
계				5(100.0)

Collection @ chosun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아잔타 석굴	1(9.0)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아소카왕 석주, 스투파	2(18.1)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 미술	(B.C.78-A.D.226)	불타입상(2C), 보살좌상(2C), 반가사유상	3(27.2)
	굽타 왕조의 아잔타 미술	(380-606)	초전법륜좌상(5C), 연꽃을쥔 보살도	2(18.1)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시바상	1(9.0)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타지마할묘당	1(9.0)
	근-현대	(1526~현재)	라지프트화(1780)	1(9.0)
계				11(100)
기타	캄보디아		앙코르 톰(1200)	1(25.0)
	미양마		쉐다곤 파고다	1(25.0)
	인도네시아		보로부르드	1(25.0)
	아프가니스탄		바비얀 석굴	1(25.0)
				4(100.0)

3) 서양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라스코동굴벽화(구석기) .스톤헨지(신석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구석기) .아부심벨신전 .칼(BC3100) .포도나무 .지구라트(BC.22-21) .암각화(BC7) .니케신전(BC421) .흑회식항아리(BC6) .사모트라케의 니케(BC200-190) .부부상의도관(BC.550-520) .복숭아와유리단지(BC.5) .수도교(BC1-AD 1C) .아우구스투스황제상(BC20) .촌장상 .코우로스(B.C 525) .벨베데레의 아폴론(B.C4-1세기)	18(23.0)
중세	(8 ~ 13세기)	.하기아소피아대성당 .대회교사원 .린다우성서표지 .피사대성당 .사르트르대성당 .피에타(1300) .Giotto(1305) Brunelleschi.F(1420-34) .전능자그리스도(1320) .프레스코화(1123) .스테인드글라스	11(14.1)

dCollection @ chosun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Donatello(1425-30) .Botticelli.S(1485-86) .Durer.A(1503) .Raffaello.S(1513) .Michelangelo외 1(1513-16) .Rubens.P(1625) .Rembrandt(1632) .등잔(1700) .Goya(1814)	.Veroccio(1470) .Leonardo da vinci(1503) .Giorgione(1508) .Bruegel.P(1566) .El Greco(1586) .Bernini(1623) .베르사유궁내부(1661-90) .Boucher.F(1751)	18(23.0)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Canova.A(1793) .Courbet.G(1854-55) .Millet.J(1867-71) .Turner.J(1838) .Monet.C(1891)	.Ingres.J(1814) .Delacroix.E(1861) .Corot.J(1830) .Mlanet.E .Signac.P(1893)	10(12.8)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Eiffel.A(1889) .Cezanne.P(1895) .Picasso.P(1907) .Modigliani.A(1918) .Duchamp.M(1913) .Matisse.H(1940)	.Rodin.F(1892-97) .Gauguin.E(1897) .kirchiner.E(1913) .Brancusi.C(1924) .Dali.S(1936) .Gabo.N(1952-59)	12(15.3)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kooning.W(1953) .Baldaccini(1962) .Stella.F(1968) .퐁피두 센터(1971-77) .Hanson.D(1985)	.Warhol.A(1962) .Le Corbusier(1967) .Smithson.R(1970) .백남준(1971)	9(11.5)
계				78(100.0)

Collection @ chosun

(7) 시공사

시공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0 > 와 같다.

< 표 10 > 시공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반구대암각화(청동기)		1(2.2)
삼국시대	(기원전57~ 935)	.태환귀걸이(신라) .여인도(고구려)	.정림사지5층석탑(백제) .서산마애삼존불(백제	4(9.0)
통일신라	(668~1392)	.석굴암본존불		1(2.2)
고려시대	(918~1392)	청자오리형연적	.김우(1310)	2(4.5)
조선시대	(1392~1897)	.경북궁의경회루 .사층사방탁자 .경북안동하회마을의 양진당 .분청사기조화물고기문양편병 .신사임당(1504-1551) .이경윤(1545-1611) .신윤복(1758-1813) .채색화 .십장생도	.정선(1676-1759) .김홍도(1745-1806) .김정희(1844) .십장생문양장	14(31.8)
근대	(1897~1945)	.윤효중(1917) .이중섭	.박수근(1962) .탱화(1920)	3(6.8)
현대	(1945~현재)	.이승택(1994) .전수천(1995) .최의순(1997) .전 준(1997) .김정명(1998) .최종태(1993) .김화나기(1959) .변관식(1959) .이종상(1997) .송희성(2000)	.조승환(1995) .최인수(2000) .엄태정(1996) .최기원(1968) .권진규(1967) .김종영(1958) .이우환(1979) .박래현(1956) .신영상(1980)	19(43.1)
계				44 (100.0)

2) 서양

dCollection @ chosun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라스코동굴벽화 .석회암 채색화	2(10.5)
중세	(8 ~ 13세기)	최후의 심판	1(5.2)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Jan V.(1434) .Michelangelo. B(1499) .Michelangelo D.(1597-1599)	3(15.7)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Auguste Rodin(1892-1898)	2(10.5)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Piet Mondrian(1921)외 1점. .Naum Gabo(1890-1977)	3(15.7)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Yves Klein(1960) .Lucio.F(1961) .David Smith(1964) .Lucas S(1966) .Danard Judd(1969) .Jean Dubuffet(1975) .Henry Moore(1982) .Niki de Saint Phalle(1983)	8(42.1)
계			19(100.0)

(8) 천재교육

천재교육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1 > 과 같다.

<표 11 > 천재교육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

선사시대	(70만년전~기원전)	.조개껍데기얼굴, 골각기, 조개팔찌(신석기) .빗살무늬토기(신석기) .민무늬토기(청동기) .비파형동검(청동기) .허리띠고리(청동기) .암각화(신석기-청동기) .잔무늬거울(청동기) .오리모양토기(연맹국가시대)	8(11.4)
삼국시대	(기원전57~ 935)	.장국총(고구려) .백호도(고구려) .주인초상(고구려) .금동대향로(백제) .쇼토구태자상(백제) .정림사지 5층석탑(백제) .바퀴장식토기(가야) .분황사탑(신라) .유리봉수병(신라) .금관(신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11(15.7)

dCollection @ chosun

통일신라	(668~1392)	.불국사(8세기) .불국사3층석탑 .묵화무늬대접형토기 .포석정	.석굴암내부(8세기) .금동불두 .안압지 .성덕대왕신종	8(11.4)
고려시대	(918~1392)	.부석사조소여래좌상 .부석사무량수전 .나전대모국당초무늬염주합 .기마도강도	.월정사팔각9층석탑 .법어,탄연 .청자상감운학무늬매병 .수월관음도	8(11.4)
조선시대	(1392~1897)	.숭례문 .오륜행실도 .일월도 .안견(1418~?) .이정(1541~?) .조속(1595-1668) .신윤복(1758~?) .장승업(1843-1897)	.금박귀주머니 .분청사기인화무늬병 .백자항아리 .강희안(1419-1464) .신사임당(1504-1551) .정선(1751) .김정희(1786-1856)	15(21.4)
근대	(1897~1945)	.안중식(1913) .김복진(1925) .윤효중(1940) .변관식(1950) .명동성당(1896)	.고희동(1915) .황술조(1930) .이중섭(1950) .이상범(1954)	9(12.8)
현대	(1945~현재)	.장운상 .장리석(1958) .김종영(1975) .장욱진(1987) .전국광(1987) .김석철(1994)	.서세옥(1929-) .김환기(1961) .유경채(1979) .이응로(1987) .백남준(1990)	11(15.7)
계				70 (100.0)

2) 동양

나라	시대	연대	참고 도판	계

dCollection @ chosun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 주(周)	(B.C 1000~300)	청동기(은), 갑골문(은)	2(25.0)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221~206~AD220)	만리장성(진~명시대)	1(12.5)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둔황석굴	1(12.5)
	수(隨)·당(唐)	(581-618-906)	강상설제도(당), 당삼채항아리(당)	2(25.0)
	송(宋)·원(元)	(960~1368)	송림정자(원)	1(12.5)
	명(明)·청(青)	(1368~1900)	천단기년전(청)	1(12.5)
	근-현대	(1900~ 현재)		
계				8(100)
일본	아스카 시대	(552~645)		
	나라 시대	(710~794)		
	헤이안 시대	(794~1185)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무로마치 시대	(1333~1573)	추동산수(1420-1506)	1(25.0)
	모모야마 시대	(1573~1615)	오사카성천수각(1583)	1(25.0)
	에도 시대	(1603~1867)	부악38경(1760-1849), 호반(1866-1924)	2(50.0)
	근-현대	(1867~현재)		
계				4(100.0)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미술	(B.C.78-A.D.226)	불타 좌상	1(25.0)
	굽타 왕조의 아잔타미술	(380-606)	왕과 왕비(아잔타 석굴 부분)	1(25.0)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시바상	1(25.0)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타지마할	1(25.0)
	근-현대	(1526~현재)		
계				4(100.0)

3) 서양

Collection @ chosun

선사-고대	(기원전 ~7세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구석기) .동굴벽화(구석기) .스톤헨지(신석기) .투탕카멘마스크 .부조 .파피루스 .소를습격하는 사자(BC5세기) .지구라트(BC22-21) .프레스코 벽화(BC17-15) .니케신전(BC4세기)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BC350).아우구스타문(BC2세기) .전원의조망(BC20) .콜로세움 .부부상의도관(BC550-52)	16(18.8)
중세	(8 ~ 13세기)	.성소피아돔(532-537) .전능하신그리스도(1123) .전능자그리스도(1320) .피사성당(1053-1272) .사르트르성당(1194-1593) .Giotto.d.B(1266-1337) .장미창(14C) .건축장식(1611-37) .세밀화(17C 초) .타일패널(17C초)	12(14.1)
르네상스 이후	(14 ~ 17세기)	.Masaccio.(1401-1428) .Brunellescho.F(1420-34) .Donatello(1425-30) .Van Eyck.J(1434) .Botticelli.S(1482) .Durer.A(1498) .Micheleangelo.B(1499) .Leonardo.D(1503) .Raffaello.S(1483-1520) .Tintoretto.(1592-94) .Tiziano(1562) .Bruegel.P(1566) .Caravaggio.M(1573-1610) .Bernini(1622) .Rebens.p(1625) .Rembrandt.H(1642) .Velazquez.D(1656) .세브르요(1760)	18(21.1)
신고전주의 이후	(18 ~ 19세기)	.David.J(1793) .Canova.A(1805-07) .Ingres.J(1814) .Constable.J(1821) .Delacroiz.E(1822) .Corot.J(1826-45) .Courbet(1854-55) .Millet.J(1857) .Daumier.H(1808-1879) .Manet.E(1832-1883) .Sisley.A(1873) .Renoir.P(1895-1990) .Van Gogh.V(1888) .Gauguin.P(1892) .Goya.F(1903-06)	17(20.0)
인상주의 이후	(1900 ~1945)	.Gaudi.A(1882) .Manguin.H(1874-1943) .Picasso.P(1907) .Severini.G(1912) .Kirchiner.E(1913) .Lipchitz.J(1914) .Kandinsky.W(1866-1944) .Rodin.A(1901-04) .Bourdelle.E(1909) .Dali.S(1929) .Duchamp.M(1944) .Giacometti.A(1950)	12(14.1)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현재)	.Fautrier.J(1943) .Hofmann.H(1943) .Marini.M(1947) .Hartung.H(1957) .Rauschengeeg.R(1968) .Merz.M(1968) .Simithson.R(1970) .Calder.A(1971) .Riley.B(1974) .Flack.A(1974)	10(11.7)
계			85(100.0)

d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학 번		과 정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주소					
연락처	E-MAIL:				
논문제목	한글 :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Collection @ chosun